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오전 10:30	<b>등록</b>
오전 11:00	<p><b>주제성서연구</b></p> <p>※ 사회: <b>장관철 목사</b>_광주무진교회</p> <p>※ 기도: <b>고병국 목사</b>_여수중부교회</p> <p>※ 발제: <b>배현주 박사</b>_前 WCC 중앙위원·실행위원</p>
정오 12:00	<b>점심식사</b>
오후 1:00	<p><b>포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b></p> <p>※ 진행: <b>김원배 목사</b>_빛고를 평화포럼 원장</p> <p>※ 발제: <b>이삼열 박사</b>_대회문화아카데미 이사장</p> <p><b>김창주 목사</b>_한국기독교교장로회 총무</p> <p><b>이정규 청년</b>_서울 성남교회·한신대 신대원</p> <p>※ 배석: <b>배현주 박사</b>_前 WCC 중앙위원·실행위원</p> <p><b>채수일 목사</b>_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p>
오후 3:30	<p><b>함께 드리는 사랑과 평화 예배</b></p> <p>※ 인도: <b>최현태 목사</b>_신전중앙교회</p> <p>※ 말씀: <b>채수일 목사</b>_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p> <p>※ 기도: <b>정문달, 설희라, 염기열, 윤도경, 포럼 발제자</b></p> <p>※ 감사인사: <b>김민호 목사</b>_빛고를 평화포럼 이사장</p> <p>※ 안내말씀: <b>권점용 목사</b>_빛고를 평화포럼 서기이사</p> <p>※ 축도: <b>윤세관 목사</b>_증경 기장총회장</p>
오후 4:30	<b>파송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b>

## 환영사

---

- 빛고을평화포럼 ... 009  
※ 이사장 김민호 목사·원장 김원배 목사
- 크리스찬아카데미  
※ 이사장 채수일 목사·원장 이상철 목사

## 주제해설

---

- “제11차 WCC 총회 주제 해설” ... 012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국제협력선교부 번역

## 제11차 총회 참석 보고

---

- “발로 뛰는 에큐메니즘” ... 026  
-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카를수루에 총회, 보고와 성찰  
※ 장운재 박사

## 포럼발제

---

- “WCC 총회와 시대적 과제” ... 046  
※ 이삼열 박사
-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주제를 어떻게 목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 056  
※ 김창주 목사
- “청년의 관점으로 본 WCC 총회” ... 062  
※ 이정규 청년

---

## 주제성서연구

---

- “자비로우신 예수(Jesus the Compassionate)” … 072  
※ 배현주 박사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 화해와 일치” … 088  
※ 잭 크하릴(Jack Khalil) 박사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 092  
※ 크리지스즈토프 밀카렉(Krzysztof Mielcarek) 박사
- “그리스도의 사랑 - 삶을 위한 자비 - 삶의 총체성에 대한 긍정” … 096  
※ 디아나 트사그히키안(Diana Tsaghikyan) 박사
- “그리스도의 사랑 - 변화된 따름 - 정의와 인간존엄에 대한 긍정” … 100  
※ 파울로 우에티(Paulo Ueti) 박사
- “그리스도의 사랑 - 그리스도적인 일치적 결합과 교회들의 공동 증언” … 106  
※ 케네스 엠타타(Kenneth Mtata) 박사

## 평화예배

---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화예배” … 114
- “아래로 내려가야” (누가복음19:1-10) … 124  
※ 채수일 목사

## 협력교회

---

-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가나다순) … 134  
※ 광주 무돌교회·광주 무진교회·광주 백운교회·광주 성광교회·광주 세광교회·  
광주 양림교회·광주 예원교회·광주 한빛교회·목포 꿈동산교회·목포 연동교회·  
목포 함께걷는교회·나주 빛가람교회·무안 제일교회·강진 서문안교회·성전교회·  
순천 중부교회·신전중앙교회·여수중부교회·작천교회·칠량교회·해제중앙교회·  
화순읍교회



## “포럼의 장을 열면서”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해의 끝 달 첫날입니다.

빛고을 평화포럼과 크리스찬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하반기 포럼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분 한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는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주제를 중심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한 교회와 세계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깨우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한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오늘의 오이쿠메네는 창조세계의 파괴로 야기된 지구 종말위기,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사이를 양극으로 나누는 경제적 불평등,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진 자들이 일으킨 전쟁의 참화 등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삶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번 WCC 제11차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헤어지면서 2030년 다음 총회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오이쿠메네가 직면한 위기의 절박함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탄식과 물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포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한 교회와 세계에 희망을 주는 영감을 얻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김민호 목사	이사장 채수일 목사
원장 김원배 목사	원장 이상철 목사



## 주제해설

---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sup>1)</sup>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제11차 ‘칼스루헤’(Karlsruhe) 2022, 총회 주제 해설

번역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국제협력선교부

2022년 (8월 31일~9월 8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가 독일 ‘칼스루헤’에 모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11차 총회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요 17:23)하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며 세계교회협의회 교제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창조 세계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 가시적인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돈독히 하는 때이다.

### 1. 우리 모임의 컨텍스트

제11차 총회는 독일 ‘칼스루헤’에서 열릴 예정이다. 독일은 풍요로운 국가이지만, 코로나19로 다른 모든 국가와 같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이번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팬데믹은 인류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들 안에 깊이 내재된 불평등과 분열상을 여실히 폭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특권층과 억압받는 사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 간의 갈등과 불의라는 추악한 현실에 눈을 뜨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은 경험의 어두운 그늘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여 희망의 빛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신 사랑, 곧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사랑을 선포할

1) 이 문서는 세계교회협의회 의 허락을 받아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2021년에 출판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WCC 주제해설 원문 링크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publications/christs-love-moves-the-world-to-reconciliation-and-unity-a-reflection-on-the-theme-of-the-11th-assembly-of-the-world-council-of-churches-karlsruhe-2022>



---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서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즐거이 머무는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모여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사랑의 선교를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2013년부터 세계 교회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을 공동의 소명으로 선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함께 했던 모든 일을 되새겨 보고 서로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사랑, 그리고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향한 사랑 안에서 다음 순례의 여정을 위한 영감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간주하던 삶의 방식에 중대한 도전을 주었다. 비극과 죽음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개인주의의 한계, 세계화의 도전(세계화로 인해 바이러스가 빨리 퍼져 나갈 수 있었다), 인간의 상호 책임성(때에 따라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한)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동시에, 전쟁은 많은 비참함과 고통과 죽음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기후의 변화는 이제야 일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공포가 되었지만, 극빈층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재앙과 위협이 되고 있다.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모두 정치 지형의 빠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민주주의 자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부하고 종종 공허한 약속으로 비추어질 뿐이다.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협의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게다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마저 잊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다가올 나라의 표징과 전조로 살아가고, 가장 암울한 때에도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총회는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며 치유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순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담긴 우리는 성령으로 강해지고, 우리 존재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은 세계 교회의 교제로 다음 여정을 위한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림자 취급받는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등하는 이들에게 화해를, 모든 분열된 이들에게 화합을 가져올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사랑이 …” - 총회 주제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기초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는 주제는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경이로움을 세상에 전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나타나고 모든 이들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린도교회에 서신을 보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갈릴리 지역의 교사나 자기들만의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총만함”(골 2:9)이 깃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분이다. 우리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다. 이 사랑은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떠맡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질서를 만들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4:16)라고 선포하고, 바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영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엡 1:22~23)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살며, 그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불의와 폭력과 분열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의와 평화와 일치를 부어 주신다.

어떤 총회든 그 총회의 주제는 교제로 모이는 이들의 울타리를 제공하고, 우리 삶과 여정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행보의 방향을 설정한다. 총회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인 코이노니아(Koinonia), 세상 사람들과 창조 세계를 향한 디아코니아(Diakonia), 세상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 선교(Missio Dei), 그리고 말씀을 담아 서로와 세상을 위한 기도(leiturgia)를 새롭게 모색하는 효율적인 길을 열어준다.

2022년 ‘칼스루헤’ 총회 주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로의 사랑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다시 일깨워준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한없이 깊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들과 그 사랑으로 주어진 것들이 우리를 이끌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사와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은사를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도록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라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한다.

총회에서 연구하고 다루게 될 복음서와 신약성서 전체의 많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 처음 증거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마태복음 9장 35~36절이 핵심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드러내고 행하신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5~36)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측은지심에 이끌려 “담대하게”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치유와 희망을 전한다. 그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광야에 몰려든 무리와 모든 성읍과 마을에 모인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이 사랑은 감명을 주는 한 인간존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신성한 사랑은 넓고 깊으며, 구체적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준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분의 사랑이 상처투성이고 깨어진 세상 속에 드러나며 교회와 세상을 이끈다.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통해 더욱 새로워지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오도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이 사랑은 구속적이고 자기 부정적이며 희생적이며, 선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 3. “...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이 시대의 도전에 응답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전 세계에서 오는 회원 교회들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며, 참가자와 총대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울부짖음과 요청이 함께 모아진다. 교회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많은 도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길을 모색해 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시대의 삶에서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인류와 창조 세계 간의 일치에 중대한 도전이 될까?

## 1) 코로나19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슬픔에 잠기고, 부서지기 쉬운 허약함에 내몰리며,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한 파열된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줬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망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겸손함을 배웠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와중에도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사랑을 표현하고 생생하게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코로나19는 또한 서양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자립 자조, 독립, 개인주의 가치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우리 인간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극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팬데믹은 또한 세계의 많은 불평등 상황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켰다. 교회들 역시 예배드리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며, 때로는 국가권력과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일 등에 관한 논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울부짖는 소리와 지역 공동체와 민족이 외치는 저항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상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괴롭고 무기력”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러했듯 그리스도는 긍휼을 베푸신다.

## 2) 기후 변화

우리는 기후가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인간이 한 일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인간의 지배욕으로 신음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요즘의 기후 위기에 관해 얘기한다. 에베레스트 정상(쓰레기)에서 바다 밑바닥(플라스틱)까지, 시베리아(기록적인 고온)에서 킬리만자로(“영원한” 눈이 사라지고 있음)와 태평양 섬(많은 곳이 물에 잠길 수 있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지구 생체 신호들은 인간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많은 생물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창조 세계의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한계를 모르는 삶이 한계를 모르는

---

파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웠다.

많은 과학자가 지구는 오늘날 인류세(Anthropocene, 人類世)라고 불리는 지구 역사의 새로운 시기에 있다며, 특히 지난 200년 동안의 산업화 기간에 인간 지배의 영향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인류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데 실패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모두의 변화와 회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희망으로 살아간다.

### 3) 불평등

우리는 세계의 부가 극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글로벌’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기만 했다.

일부 지역은 수많은 도전과 함께 전염병에 대처하는 일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경제적 파멸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도 했다. 일부 국가와 국민은 국제협약과 국제원조로부터 후퇴하고 “우리부터 살자”는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 세계의 현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등의 “가장자리”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성경의 전통과 상반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에 도전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새로운 국제 금융과 새로운 경제 설계를 통해 “생명의 경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우리는 또한 끔찍한 만행들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Black Lives Matter)라고 부르짖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접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고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불평등에 맞서는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기도 했다.

에큐메니컬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1세는 지난 제7차 연례 G20의 종교 간 포럼 대표자들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에서, BLM운동과 관련하여 “무한한 인간의 생명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 그래서, 인간은 시장가치나 교환을 위한 상품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

인간의 존엄성에는 피부색,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종교가 따로 없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모든 형태의 구조적 불평등,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부족주의, 카스트주의 그리고 계급주의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정책입안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의와 모든 형태의 차별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4) 디지털 혁명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혁명은, 이전의 산업 혁명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세상을 낳을 수 있다. 우리가 살고, 말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많은 경계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일을 가능하게 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에는 부응하지만, 결국 인간 이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불편한 물음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면 소통이 후퇴하면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낳는다. 미래에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나 정신적인 한계까지 극복하게 되어 오늘날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더는 그때의 “인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계 학습, 보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생물학적 연구, 로봇의 개발 및 사용 -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 5)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확신의 상실

많은 사람이 정부, 국제 포럼 또는 국제협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자유의 상실과 인권의 유린을 목격한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일치보다는 자기 중심주의와 분열로, 보편적이고 국제적이기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모든 인류가 하나라기보다는 차별과 개별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사람들 간의 폭력이 난무하고, 땅을 잃고 난민이 되거나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갖은 폭력에 시달리며,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불안과 공포에 신음하고 있어 전 세계가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다. 이러한 고통과 불의한 현실 앞에서 세계의 여러 정부나 조직들의 효율성은 제한되며, 오히려 고통과 불의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곳곳에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사건들을 만들기도 했다. 이웃을 돕고, 정부와 보건 기관이 구호를 위해 노력하고,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위해 애를 쓰고, 국가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세계는 새로운 연대와 새로운 희망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사랑’을 공공의 무대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 빈곤 문제, 건강 이상과 같은 의제들 앞에서는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팬데믹은 이 진실을 명백하게 했다.

#### 6) 세상은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는다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릴 2022년 세상이나 모두, 온갖 불의로 가득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고통받는 사람으로, 고통받는 피조물로, 고통받는 지구로 훼손된 세상이다.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동안에도 여러 곳에서 - 때에 따라 비극적이게도 종교의 이름으로까지 행해지는 -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난다. 소수는 잔치를 벌이고 다수는 굶어 죽으며 극심한 불평등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다.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고 타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일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권력 행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창조 세계 자원이 계속 착취당하고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고향인 지구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쇠신이 요구된다.

#### 4.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태도 : 사랑

그러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받았기에 나 자신의 인간적인 자원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하신다. WCC 신앙과 직제의 문서 중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의 마지막 장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우선적인 태도는 인류 역사의 소중한 구성원이 된 어린이와 여성, 남성, 실로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태도”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 그 사랑은 또한 예수의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드러나고, 예수의 고난, 죽음과 부활로 드러났으며, 창조 세계 회복의 약속 안에서 나타났다. 이 사랑으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고, 이 사랑은 교회와 세상을 위한 선물이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교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감을 주고 모든 일을 이끌고 창조한다.

총회의 주제에서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열어 두고, 그 사랑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소망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항상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겸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 선교의 새로운 창조물이며 표징이고 종이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에 근거한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세상을 향한 봉사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의 표징으로 부름 받았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던 사도들의 삶을 계승한다. 이것은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사랑이다. 화해의 표징인 교회의 일치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봉사와 항상 동일시되어야 하고 봉사와 연결된다.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세상과 교회”라는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위한 실천 투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교회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깊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일치 안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도록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은 친교를 고무시키고 우리를 서로에게 이끌리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외쳤다 :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눅 13:34).*

사랑은, 사상이나 이상보다 사람을 더 모이게 하고,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사람을 일치로 이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표징이며,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의 종이므로 그들의 사랑을 담은 태도와 실천을 통해 교회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이 증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열망에 대한 낭만적이고 순진한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 간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였다(요17).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기도했다. 이들의 일치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들의 일치를 보고 믿고 하나가 되도록 구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말씀과 사도의 신앙고백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이며 깨어진 세상을 위한 일치의 표징이다.

일치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기독교의 예배 중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실재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깨어진 세상이 하나 되는 일치의 표징이 되게 하신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차이와 분열의 익숙한 표식들을 무너뜨렸음을 알 수 있다 :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니라” (갈 3:28)

교회는 사랑이었고, 사랑이며,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치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창조 세계의 종말론적인 일치의 표징이자 스스로를 증으로 내어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공통된 열망에 기초한 일종의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고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일치, 타인에 대한 사랑의 부족,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절실한 상황이 우리를 하나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격 미달인 점이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자 약속이며 희망이기도 하다.

교회가 일치를 이룰 때, 세상을 향한 증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 일치를 증거 한다. 세상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일치로 들어간다. “교회와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교회에서 모이고 화해하고 새로워지는 것들은, 결국 “세상”에서 온 것들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기에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있어야 하며 마지막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일치를 가져오면서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 5. 마음을 담은 에큐메니즘

“사랑”이라는 단어가 WCC 총회 주제의 일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머리(이성)와 가슴(감성)으로 이루어지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사랑 그 자체를 따르며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의 수많은 사람이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지적, 제도적, 형식적 차원을 넘어 관계와 공동의 기도, 무엇보다 상호 애정과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치를 향한 일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받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에 근거해야 한다(요13).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14:21)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화시키는 제자직

에 근거한다.

인간은 일치와 사랑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커뮤니언”(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일치”라는 단어보다 상위에 두고 사용하곤 하는데, 이는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일치의 개념이다. 가장 친밀한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인간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사랑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게다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관계를 경험하면서 일치와 사랑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알게 한다.

사랑은 우리를 서로에게 이끌리게 하고, 함께 있게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며, 고난이 오고 고통이 깊을 때도 서로 옆에 서게 만든다. 사랑과 커뮤니언은 같이 간다. 일치와 사랑은 함께 한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

사랑에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게 묶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과 모든 선한 세력들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끈다. 다양한 신앙 전통을 관통하는 주제로서의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 정의 추구하고 봉사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주의를 기울인다 - 철저한 환대와 연대를 통해 우리는 낯선 자들을 이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언어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예언자적으로 변화시켜, 내일에도 함께 나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다종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열정적인 헌신에 뿌리를 두고 동시에 폭넓은 대화를 열망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WCC와 교황청의 종교간 대화평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상처 입은 세계에 봉사하기 : COVID-19 및 그 이후에 대한 성찰과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문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살아난다 ...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과 선교가 살아나고, 그리스도 현존의 사랑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랑은 감정과 느낌 그 이상이며, 때에 따라 시험을 당하며, 감정의 표현만큼이나 의지와 지성의 표현이다.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정치, 행동, 그리고 신중한 생각에 관한 것이다.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고전 13:1~7, 13) 오래 참으며, 친절하며,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향한 순례에서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완전하고 가시적으로 일치하게

---

되어 그 위대한 날이 올 때 비로소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우리가 사도의 고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서로 인정할 때, 한 식탁에 모일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의 커뮤니티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커뮤니티를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하면서 이론적으로나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가시적이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 만인이 볼 때 커뮤니티인 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담은 에큐메니즘일 것이다.

## 6. 결론

에큐메니컬 운동은 항상 교회들이 가시적 일치와 온전한 친교(Full Communion)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초청하는 일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진 요즘, 그와 같은 소명이 더욱 필요하다.

교회의 선포는 이제 낙관적이기만 했던 공허한 정치적 수사학이 아니라, 진실한 희망과 공공성을 담은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서 세상을 돌보는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을 열어야 한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로 형성된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자원이 공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이 새롭게 발견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은밀한 곳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비밀스러운 공동체 안에서만 기도하며 살아가던 교회는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공공장소와 세상의 열린 곳들로 “보냄”을 받아 정작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성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파송 명령을 받았다. 진정한 사랑, 공동체성, 정의와 희망을 갈망하는 세상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가시적인 일치를 나타내며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를 이루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는 교회를 소망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제11차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이다.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선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화해되어 인류로서 진정한 일치를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 제11차 총회 참석 보고

---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 “발로 뛰는 에큐메니즘”<sup>1)</sup>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 보고와 성찰



**장윤재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2022년 8월 31일에서 9월 8일까지 9일간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제 11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총회가 열렸다.(독일 본토 발음은 ‘칼스루어’이다. 프랑스의 ‘마지노선’과 가까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을 많이 받은 도시다.) 2013년 부산총회 이후 9년 만이다.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해 연기되었다. 필자는 이 총회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대로 참여했다. 1991년 캔버라 총회에 청년 스튜어드로 참여해 WCC와 인연을 맺은 지 30여 년 만의 일이다.

이 글은 ‘보고와 성찰’이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고 그 사건의 의미를 성찰할 것이다. 이번 총회 직후의 열기가 가시고, 8년 뒤 제12차 총회가 지구상 어디선가 열릴 때를 대비해 오늘을 충실히 기록하고 미래를 성찰할 것이다. 물론 ‘코끼리 다리 만지기’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이 이런저런 모양과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카를스루에에는 독일사람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많다.”라는 농담이 돌았다.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고, 또 부산총회가 헛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총대 몇 사람이 외국에 다녀오는 총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제 땅에서 경험한 WCC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았겠는가.

SNS의 발달로 200명 가까운 한국 참가자들의 각종 보고와 사진, 영상이 쏟아졌다. 필자의 글은 그것들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 글은 다른 보고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총대로서 본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세션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보고 듣고 느낀 것

1) 이 보고문은 2022년 기독교사상 11월호에 발표되었던 것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다시 게재한다.

---

을 기록하고 성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글에서는 본회의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거기서 실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어떤 성명서가 채택됐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의미를 성찰할 것이다.

사실 ‘총대’(delegate)로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고생길’이다.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총대들의 경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려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농담도 있다. 필자의 경우는 고생길을 넘어 ‘고행길’이었다. 총회 재정위원으로 불려가 점심도 못 먹으며 열흘 동안 열 차례 이상 회의를 거듭했다. WCC 총회가 열리면 6개의 총회위원회가 문을 연다. 재정, 인선, 정책, 프로그램, 총회 메시지, 그리고 성명서 위원회 등 여섯 개의 위원회다. 총대의 5분의 1이 여기에 배속되어 고행길을 걷는다. 그래서 총회를 ‘즐거지’ 못한다. 하지만 보상도 크다. 필자는 지금까지 WCC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하지만 WCC의 재정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느 기관이든 한 기관을 배우려면 재정부터 공부해야 한다. WCC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와 보니 왜 세계 예큐메니컬 운동에서 한국교회가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보고서를 읽을 것이다. 이번에 카를스루에에는 WCC를 비판하려고 작심한 한국 보수 기독교 유튜버들의 현장중계가 있었다. 그들은 방문증을 들고 총회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왜 WCC가 종교혼합주의이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이며 용공적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썼다. 별다른 성과가 없자 어느 플래카드의 한쪽 구석에 찍힌 작은 무지개 문양을 확대해 보여주며 이것이 WCC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다. 교리적인 차이로 갈라진 두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회를 여는 곳을 가서는 ‘이것이 예배냐’고 혀를 찼다. 자기에게 익숙한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모양이다.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 78억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약 3분의 1인 25억 명이다. 이 중 약 절반은 로마가톨릭이다. 그다음은 오순절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교단이 약 3억 명의 신자를 가진 정교회다. 가톨릭-오순절-정교회 순이다. 필자가 속한 장로교회는 9위쯤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3% 정도이다. 한국의 신구교 그리스도인을 다 합해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0.6%밖에 안 된다. 이 중 WCC를 반대하는 교단만 추리면 훨씬 적다. 한국을 ‘선교 대국’이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선교를 받는 인도네시아에는 한국보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더 많다. 중국은 한국의 10배다. 필리핀은 7배다. 아프리카엔 10개 나라 이상이 한국보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다. 인구가 남한보다 적은 케냐만 해도 기독교인 숫자는 남한의 두 배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독선적일 수 있다.

WCC는 정교회와 대부분의 개신교단의 연합체다. 130여 년 전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모교회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약 6억 명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352개 교단이 서로의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며 가시적 일치를 이루려고 애쓰는 운동이 WCC다. ‘교리적 일치’를 통해 로마가톨릭과 같은 ‘거대 단일 교회’를 탄생시키려는 음모가 아니다. “교리는 분열시키고 봉사는 일치시킨다”라고 했다.

### 총회 주제의 명(明)과 암(暗)

이번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이다. 우리말 공식 번역은 완벽하지 않다.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이신다/옮기게 하신다’(move)”이다. ‘이끄신다’(lead)가 아니다. 그 단어는 부산총회 때 사용됐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오늘의 반목과 분열의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움직이고 또 변화하게(운동하게) 하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번 총회의 주제가 한국어로는 잘 표현되지 못한 것 같다. 에큐메니즘은 ‘운동’(movement)이다.

역대 WCC 총회 주제 중에서 이번에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화해’라는 말도 처음 쓰였다. WCC 총회의 주제는 아무렇게나 고르는 표어가 아니다. 주제는 총회의 영혼이고 시대의 정신이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다. 이번 총회 주제 선정의 기초가 된 성서구절은 고린도후서 5:14-20절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목[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직분’, 곧 ‘그리스도가 보낸 화해의 대사(大使, ambassador)’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또 중요하게 작용한 성서구절은 마태복음 9:35-36절이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WCC는 지금의 세계를, 그리고 인류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로 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로, 극심한 불평등으로, 전쟁과 폭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로,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폭주로 온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애끓는 마음으로’ 지치고 상한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계가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

WCC 총회의 중심에 ‘사랑’을 처음 놓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치고 기진맥진한 에큐메니컬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했다. 실로 코로나와 전쟁과 기후변화와 기근에 시달리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희망을 품게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심장으로 하는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heart)의 새 지평이 열릴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사랑’이나 ‘화해’가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진실을 가리는 값싼 감상적 호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총회 이전과 또 총회 중에 강력하게 제기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카이로스 문서>가 말하듯이, “불의와 억압이라는 죄가 지속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평화와 화해도 모두 거짓 평화이며 위장 화해”이기 때문이다. 이 비판은 유효했다. 지난 부산총회에서 WCC는 총회의 주제(“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받아 다음 총회가 열리기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정의와 평화의 순례’(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걷자고 제안했는데, 이번 카를스루에 총회에서도 원래는 이번 총회의 주제(“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를 받아 다음 총회가 열리기까지 ‘화해와 일치의 순례’를 걷자고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그 명칭을 ‘정의와 화해와 일치의 순례’(Pilgrimage of Justice, Reconciliation and Unity)로 확정된 것이다.

부산과 카를스루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은 매우 다행이다. ‘생명·정의·평화’라는 부산 총회의 주제는 한국교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이른바 ‘지구 남반구’(Global South) 교회와 함께 강력히 제기해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약 60년 만에 유럽에서 다시 열린 이번 총회는 유럽과 독일교회의 입장이 주제 선정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랑·화해·일치’는 모두의 주제이지만, ‘지구 북반구’(Global North) 교회가 보다 선호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총회가 어디서 열리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총회는 다시 전쟁이 터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땅에서 열렸다. 자연스럽게 ‘화해’와 ‘일치’가 부상했다. 많은 아프리카교회 대표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유럽에 의해 오랫동안 식민지 통치와 수탈을 경험한 아프리카교회의 대표들은 이번 총회에서 중하게 다루기로 했던 ‘경제적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기독교가 ‘사랑, 사랑’ 말하지만, 경제적 정의 없는 사랑은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샬리 맥페이그) 지구 남반구 교회와 북반구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경험과 신학적 강조점의 차이가 엿보인다.

## 기후위원회의 신설과 원(선)주민의 약진

제11차 WCC 총회는 역대 어느 총회보다 큰 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과연 지구 위에서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묻는 시기에 열렸다. 인간이 생태계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8년

뒤인 2030년에는 제12차 총회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열렸다. 그동안 기후 위기에 대한 말은 충분히 했다. 신학적 성찰도 충분히 했다. 이제는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그렇다면 WCC 안에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온 세계교회의 역량을 총집결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으로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는 WCC 안에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Commission on Climate Crisis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신앙과 직제위원회’(Faith & Order Commission),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국제문제위원회’(Church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Affairs) 등과 같은 반열로 새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지구를 살리기 위한 10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회개와 행동의 에큐메니컬 10년 운동’(Ecumenical Decade of Repentance and Action for a Just and Flourishing Planet)이 그 이름이다.

WCC의 새로운 계획과 의지는 총회 선언문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선언문의 하나인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찾아서”(The Living Planet: Seeking a Just and Sustainable Global Community)가 대표적이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는 시간이 없다. 세계 기후 상황은 긴급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번 총회가 인간이 거주 불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걸 막는 마지막 기회다. 시스템과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속하게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화석연료는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신화석연료나 핵에너지는 결코 대안이 아니다.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탄소 감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한 삭개오를 모델로 한 ‘삭개오 세금’(Zacchaeus Tax)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 군사훈련과 전쟁을 종식하여 이 비용을 기후 긴급상황에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녹색 해결’(green solution)이 가난한 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WCC는 2030까지 ‘WCC 탄소발자국 제로’를 선언한다. 이를 위해 WCC 목적의 여행을 엄격하게 자제한다. 대신 온라인 회의를 강화한다. 생태신학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가장 일차적인 피해를 받는 원(선)주민에 주목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회복해야 한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지난 300년 동안 서구의 탄소 문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이 원(선)주민이다. WCC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mission from the margins)라는 탄탄한 선교신학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이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총무로 있을 때 정립한 신학이다. 신약성서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꺾으신 치욕을 짊어잡시다.”(히 13:12-13, 새번역)라고 말한다. 세상이 말하는 ‘주변부’가 바로 ‘성문 밖’, ‘영문 밖’이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곳이 선교의 ‘중심부’가 된다. 세상이 멸시하고 하대하던 사람들이 선교의 출발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다. 지난 300년, 서구의 탄소 중심 산업혁명에서 가장 소외된 주변부는 그 문명에 의해 정복당한 원(선)주민들이다. 지금 그 탄소 문명이 지속가능하지 않아 무너지는 시기에 그동안 가장 ‘변방’에 있던 원(선)주민들이 세계교회의 새로운 지도력으로 부상하고 약진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총회 개막을 앞두고 이틀간 원(선)주민들은 여성, 청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전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총회 앞으로 <원주민과의 화해를 위한 선언문>(Statement on Reconciliation with Indigenous Peoples)을 발표했다. ‘사랑’과 ‘화해’와 ‘일치’를 논하려는 총회 앞에서 무엇이 원(선)주민들이 생각하는 화해인지를 밝힌 것이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말해 온 ‘일치’는 종종 식민주의자들에게 순응하고 원(선)주민의 땅에 속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원(선)주민 크리스천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는다. 원(선)주민 크리스천의 토착적 영성과 기독교적 세계관 사이의 유동성을 혼합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유해하다. 세계교회는 이제 원(선)주민과 함께 그들의 전통적 땅을 보존하는 권리를 지지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 서구인들이 원(선)주민의 땅을 ‘주인 없는 땅’(無主地, 라틴어 Terra Nullius)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발견의 교리’(Doctrine of Discovery)를 포기하기를 권고한다. 아직도 이 교리를 포기하지 않은 교회들도 조속히 그렇게하기를 권고한다. 만약 교회가 원(선)주민을 파괴하는 데 공범 관계에 있다면 이를 회개하고, 교회의 모든 신앙 전통을 ‘탈식민지화’하길 바란다.

이 선언문은 WCC 안에 독립된 원(선)주민 프로그램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기후정의 운동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진리와 화해의 과정’(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을 만들어 원

(선)주민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도록 촉구했다. 또 입으로는 녹색을 외치지만 녹색의 이름으로 다시 원(선)주민에게 억압과 고통을 삶을 강요하는 ‘녹색 식민주의’(Green colonization)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원(선)주민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약진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WCC 중앙위원회 구성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150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원(선)주민이 13%나 차지한 것이다. 이는 지난 부산총회에서 원(선)주민 중앙위원이 5%였던 것에 비하면 2.6배나 많은 것이다. 잘 알다시피, WCC는 15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면서 이 중에서 여성이 50%, 평신도가 50%, 청년이 25%, 그리고 원주민이 3%, 장애인 2% 이상 구성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목표가 달성된 적은 없지만,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청년, 평신도, 원(선)주민, 그리고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 제도는 한국교회와 같이 나이 많은 남성 성직자들에 의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독점된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지난 부산총회에서 여성은 중앙위원의 39%였는데, 이번 카를스루에에서는 41%로 소폭 상승했다. 청년은 13%로 변화가 없었다.(그래서 총회 폐막 전날, 청년 총대들의 항의시위가 있었다. 말로는 ‘청년, 청년’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교회는 1991년 캔버라 총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청년 중앙위원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도 청년 중앙위원이 없으므로 한국교회는 2030년 제12차 총회가 열릴 때까지 30년 넘게 청년 중앙위원을 내지 않는 국가가 될 것이다.) 평신도 상황은 더 나쁘다. 부산총회에서 32%에 달하던 평신도 중앙위원은 이번에 23%로 급감했다. 교회가 성직자 계급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인사제설을 제기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부산에서 2%이던 장애인 중앙위원은 이번에 3%로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 부산에서 5%였던 원(선)주민 중앙위원이 이번에 13%로 대약진한 것이다. 이는 지난 300년 서구의 탄소-산업문명의 변두리에서 가장 고통 받은 주변부가 이제 ‘변방으로부터의 하나님 선교’의 중심지로 우뚝 솟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탄소배출 세계 7위로 ‘기후 악당 국가’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런 세계적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력 변화를 잘 인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변부’로부터 정의의 외침은 여성, 흑인, 그리고 장애인에게서도 터져 나왔다. 총회 일곱째 날 오전에 정의를 주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젠더 정의, 인종 정의,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 문제가 잘 준비된 공연과 토론으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한 흑인 교회 지도자는 미국에서 끊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적 규범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해 만든 것이므로 우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 장애인 교회 지도자는 “장애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선택한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장애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주체다.”라고 말해 또 열띤 박수를 받았다. 한 여성 지도

---

자는 이렇게 말했다. “화해는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화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사죄와 배상과 같은 ‘행동으로서의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말보다 실질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날 청중에서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WCC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WCC의 역할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 “최후의, 안전한 대화 공간” - WCC의 존재 이유

이번 총회에서는 ‘유럽’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있었다. 총회가 독일에서 열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유럽’이 이번 총회에서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단상에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 둘이 나왔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80%가 크리스천이며 7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교회는 싸울 것이며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고 천명했다. 두 사람의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청년 둘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러 나왔는데, 그중 남자 청년은 양말 색깔을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각기 신고 나와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신학자의 성찰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 2022년에 다시 이런 일(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진보’한다는 생각은 허상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바울 서신을 통해 깊이 성찰했다. 그러면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일치를 향해 움직이자고 호소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총회 선언문이 나왔다. WCC는 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신앙적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밝힌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에서의 평화와 정의>(War in Ukraine, Peace and Justice in the European Region)가 이 선언문의 제목이다. 초안이 나왔을 때 여태까지 조용히 참여하고 있던 러시아 정교회의 한 대표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균형 잡힌’ 성명서라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 총대들의 비난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들은 즉시 마이크 앞에 달려가 오히려 이 선언문이 약하다고 항의했다. 많은 사람이 전쟁을 반대하지 않은 러시아 정교회를 이번 WCC에서 축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어려운 순간이었다.

선언문 초안위원장은 이렇게 수습했다. “어젯밤에 이 성명서 초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무려 90통이나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명서는 없는 법입니다. WCC 총회는 대화의 공간이고 관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명서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것 몇 가지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갈등의 장벽을 넘어 존재해야 합니다. WCC 성명서의 목적은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붙이고 대화가 지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에큐메니컬 운동에 몸담은 노련미가 엿보인다. 그래서였을까? 더 이상의 논쟁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는 채택됐다. 그 핵심 내용이다.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 동안 1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1,400만 난민이 발생했다. 전쟁은 범죄다. 지난 6월에 열린 중앙위원회도 이번 전쟁은 불법이며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와, 또 우리의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무력 침공과 증오를 정당화하는 어떤 종류의 종교적 언어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므로 WCC는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한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모든 갈등 당사자가 국제 인도주의 법과 원칙을 존중하길 바란다. 특별히 원전 인근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안과 밖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모든 지역교회와 인도주의 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WCC의 역할은 서로 갈등하는 지역의 교회들이 대화와 대면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WCC 회원교회들의 의무와 소명이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더욱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WCC의 핵심적 역할이다.

이렇게 WCC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숙고한 이 선언문은 나아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migration)는 인간 역사와 성서에서 보편적인 일임을 상기시키며, 지난 부산총회 이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전례 없이 자기의 집과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선언문은 WCC가 계속해서 인신매매 문제, 난민과 이주여성 그리고 어린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 이방인에 대한 환대와 친교를 위한 신학적 성찰을 발전시킬 것, 교회가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 마지막으로 난민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 즉 악화하는 기후위기, 극단적 빈곤과 발전의 결여, 폭력적 갈등과 억압을 부추기는 정치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더 긴밀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외국인 혐오를 우려하는 선언문도 채택되었다. (“Statement on Confront-



---

ing Racism and Xenophobia, Overcoming Discrimination, Ensuring Belong”) 여기서는 지난 1968년 제4차 읍살라 총회에서 인종차별주의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라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 열린 중앙위원회가 “인종차별주의와 싸우는 프로그램”(Program to Combat Racism)을 만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와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오히려 최근 SNS의 부정적 사용으로 외국인을 혐오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 선언문은 아프리카 후손들에게 계속 가해지는 낙인찍기와 차별을 중단할 것,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횡횡하는 반아시아 정서와 폭력을 중단할 것, 특히 911 이후 중동 출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적 언사와 행동을 중지할 것,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백인 난민은 환영하는 대신 흑인 난민은 차별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 혐오를 깊이 우려하는 이 선언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언급하며 1948년 제1차 WCC 총회가 “반유대주의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선언한 것을 상기시켰다. 앞으로 살펴볼겠지만 반유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번 총회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에서 열렸기에 특히 강조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예상대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문제로 회원교회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WCC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성찰하는 기회가 생겼다. 논쟁의 시작은 ‘중동 평화를 위한 성명서’ 초안이 나왔을 때 이 초안에 사용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나친 것인가를 놓고 벌어졌다. 아파르트헤이트란 원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을 가리키는 말이다. ‘분리’, ‘격리’, ‘배타’, ‘차별 대우’란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팔레스타인인을 분리, 격리, 배타, 차별 대우하는 것을 왜 아파르트헤이트라 부르지 못하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자칫 반유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 단어의 사용을 가장 반대한 총대는 이번 총회를 유치한 독일교회의 한 대표였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죄악을 저지른 독일의 한 교회 대표로서 자신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불러일으킨 ‘반유대주의’(anti-Semitism)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무려 3분 40초에 걸쳐 발언했다. 다른 발언자들에게는 칼같이 1분을 적용하던 의장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자 총대들 사이에서는 항의가 빗발쳤다. 팔레스타인 교회 대표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 발언권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사실 이번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교회 대표들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제재 받았다. 전체회의의 연사로 나오기로 했던 한 팔레스타인 여성 청년은 원고의 수정을 요구하는 집행부에 항의하며 연단

에 나오지 않았다. 호스트가 손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해야 하나? “조건적인 환대는 ‘진실한’ 환대가 아니다.”(자크 데리다) 성명서 초안위원회에는 ‘반유대주의’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매우 준비된 참여가 감지되었다. 서로 갈등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WCC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우크라이나 성명서에서 노련미를 발휘한 선언문 초안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나와 이렇게 수습을 시도했다. “우리는 이 단어 사용에 있어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걸 솔직하게 선언문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 WCC의 역할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의 해법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약자를 편들지 않음으로써 결국 기존의 질서를 옹호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WCC 총회의 최종 문서들을 잘 번역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와 그 문장이 채택되기까지 어떤 논쟁과 과정이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채택된 “중동에서 모든 이들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Seeking Justice and Peace for All in the Middle East)라는 제목의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중동은 우리 신앙의 역사적 뿌리인 예수께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 그리스도인들과의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뿌리 깊은 폭력과 갈등으로 어느 누구도 존재론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 위기는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하다. 최고의 해결책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포용적 시민권을 보장하며 모든 이들의 정의와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WCC는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에 대규모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며, 이 정착촌의 확대는 국제법 위반임을 선언한다. 이 확대는 ‘두 국가’ 방식의 해결 전망도 매우 어둡게 하는 것이다. WCC는 이스라엘 군대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모두의 폭력을 비판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절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직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만이 답이다. WCC는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점령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단되어야 한다. 이 점령의 중지만이 평화적 해결의 단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정책과 행동을 ‘아파트헤이트’로 표현하는 것을 놓고 어느 교회는 이를 지지하고, 다른 교회는 이 용어가 적합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며,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계속 씨름해야 한다. 우리는 WCC가 모든 교회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중동의 평화에 대한 이 성명서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시리아 내전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나아가 이라크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후 붕괴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동 지역의 갈등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을 분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막상 구체적인 현안에 접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총회 현장에서 새삼 보고 느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충돌하고, 이스라엘 교회와 팔레스타인 교회가 충돌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밤새 성명서를 고치고 또 고쳐 쓰면서 끝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WCC의 노력에 한편으로는 경의가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장도 내지 못하는 WCC의 협의체적 성격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요안 사우카( Ioan Sauca) 총무대행은 총회 첫날의 총무 보고에서 현재 세계교회가 성소수자 문제로 분열하고 있다고 깊이 우려하면서,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한 후에, WCC는 오늘의 세계가 직면한 어떤 문제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며, WCC는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에 특정한 입장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WCC는 서로 다른 교리와 역사 그리고 배경을 가진 다양한 교회들의 ‘친교의 장’이라는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실 이런 입장은 기독교 근본주의(fundamentalism)의 반대편인 에큐메니컬(ecumenical) 운동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에큐메니컬’의 반대는 ‘에반젤리컬’이 아니다.) 미국 근본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그레샴 메이첸(J.G. Machen)에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 동의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모인 무리”다. 이런 교회는 “언제나 극단적으로 교리적이고… 언제나 극단적으로 불관용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메이첸은 자기와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기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려는 이들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메이첸의 이 유명한 기도는 “우리는 여기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를 창립하기로 서약했다. 우리는 함께할 작정이다.(We intend to stay together)”라는, 어느 제1차 WCC 총회 참가자의 발언과 정확히 반대되는 기도다.

본래 미국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유주의에 맞서 나름 높은 수준의 신학적 논쟁을 벌인 사상적 운동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이 운동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분리주의’ 운동으로 변질한다. 본래 ‘불신앙’(자유주의)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던 운동이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모든 이들로부터 분리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분열주의 운동이 된 것이다.

불행히도 이 끝없는 ‘싸움과 분리’ 운동이 1950년대 한국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한국이 낳은 메이첸” 혹은 “미국 근본주의의 대변자”로 알려진 박형룡 박사는 “근본주의야말로 기독교 자체”라고 주장하며 메이첸과 똑같은 분리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가 200개가 넘게 난립한 이유다. 그가 1958년에 「신학지남」에 발표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교리와 목적”이라는 논문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기본 지침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교리적으로 자유주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세계 단일교회’(super church) 구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WCC 제11차 총회 현장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니 WCC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쫓겨나오는 분리주의 운동단체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대화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하는 단체임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세상 모든 국가와 집단이 다 싸울 때 교회마저 등을 돌리고 서로 싸우면 ‘최후의 안전한 대화 공간’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총회 셋째 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종교들’(Religions for Peace)이라는 단체의 사무총장 아자 카람(Azza Karam)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다. 카람 교수 자신은 무슬림이지만 이번 총회의 주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 수 있다고 믿으며, 정치인들의 모임보다 여기에 모인 교회 대표들의 모임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 중요하고,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웃 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열된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끌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가?

“성서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현장)인 세계교회협의회는 오는 2025년에 그리스도교 2천 년의 역사에서 첫 번째 ‘에큐메니컬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맞아 ‘니케아 2025’ 캠페인을 이번에 시작했다. 니케아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모두가 인정하는 에큐메니컬 공의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분열된 교회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실지 궁금하다.

###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의사록 채택

이번 WCC 제11차 총회의 대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응답해야 할 공공의 문제들에 대해 성명서(statement)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WCC 총회는 성명서만이 아니라 의사록(minute)도 채택한다. 성명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

거쳐 참가자 다수의 결정으로 발표하는 문서이고, 의사록은 이와 달리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어떤 문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문서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두 4개의 의사록이 채택되었다. 그중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에 관한 의사록이 채택되었기에 이를 소개한다.

이번에 채택된 네 개의 의사록 중에 첫 번째는 “2020 나고르노-카라바크 전쟁의 결과”(Consequences of the 2020 Nagorno-Karabakh War)에 관한 것이다. 화학무기 사용 등 전쟁범죄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아르메니아 사태에 대한 WCC의 의사표명이다.

두 번째 의사록이 바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만들기에 대한 의사록”(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다. WCC의 모든 회원교회와 파트너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①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을 함께 지킬 것, ②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에 참여할 것, ③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통해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1억 명 서명운동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내년 2023년 7월 27일까지 받는 운동에 동참할 것 등이다.

세 번째 의사록은 “시리아 집단 학살에 대한 의사록”(Minute on Syriac-Aramic genocide)이다. 1915년에 이 학살이 일어났을 때 무려 50만 명이 넘는 시리아계, 아람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9년 전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르메니아 대학살’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룬 적이 있다. 아직 이 ‘시리아 집단 학살’이 올바르게 명명되고 규명되지 않았기에 이번 제11차 총회도 총무로 하여금 회원교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도록 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 파푸아 상황에 대한 의사록”(Minute on the situation in West Papua)이다. 서 파푸아는 인도네시아령으로 원주민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있는 곳이다. 지구 위 다양한 국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계교회와 협력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화 선언문(“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Moving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도 채택되었다. 여기서는 부산총회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 따라 세계교회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국교회를 지지하고 한국교회와 동행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 선언문은 또 일본의 헌법 9조를 수호해야 하며, 핵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신해 새로 체결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에 각국 정부가 가입하도록 교회들이 적극 설득해야 하며, 구축에 관한 다양한 협정들이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킬러 로봇’(Killer Robot)을 금지하며, 무기 수출을 유

예하고 궁극적으로 금지시키며, 시리아와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 가해져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하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펼쳐는 군사행동 패러다임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 1.9%의 기여

WCC의 재정에는 크게 두 가지 수입원이 있다. 하나는 ‘회원교회의 기여’(membership contributions)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program contributions)이다. 코로나로 인해, 또 WCC가 기준으로 하는 스위스 프랑(Swiss franc)의 강세로 인해 WCC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 해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는 우리 돈으로 200억 원쯤, ‘회원교회의 기여’는 한 해 50억 원쯤 된다. 전 세계 352개 회원교회 가운데 57%만 회원교회 기여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위원을 배출한 회원교회는 73%가 회원교회 기여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위원을 내면 좀 더 기여하고 싶은 동기가 발생하는 모양이다. WCC는 회원교회의 기여를 ‘회비’(membership fee)라고 부르지 않는다. 회비는 의무다. 하지만 기여는 의무가 아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의 가난한 교회들은 기여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런데 이번 총회 재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회원교회 기여’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 교회들이 계속해서 힘들음을 호소했다.(참고로 ‘회원교회 기여’ 가운데 북미교회는 27.8%, 아시아 교회는 5.5%, 아프리카 교회는 1.4%, 남미교회는 0.3% 정도를 내고 있다. 한국 교회는 WCC 회원교회 중 예장, 기장, 기감 세 교단이 합해서 1.9%를 기여한다. 아시아 교회 전체 기여에서 한국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다.)

유럽 교회들은 이제 재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 유럽이 가진 부의 뿌리가 식민지배에서 축적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애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유럽 교회가 느끼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에서 전통적으로 기여해 온 유럽의 단체들이 미래에는 기여를 줄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CC는 ‘회원교회 기여’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매년 2-5%의 인상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한국 교회는 이에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원교회의 기여’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가 설사 없더라도 재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WCC는 제네바에 있는 본부 토지를 잘 활용한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는 매년 약 40억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배가될 예정이다. 앞으로 열릴 모든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온라인 회의 비중을 높일 것이다. 지출을 줄이고 여행으로 인한 탄소배출도 줄이는 이중의 효과도 얻을 것이다. 나아가 차기 12차 총회는 참가자 수를 줄이고 개최 일수도

---

줄일 것이다. 총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거의 1년 예산이 필요하다. 이번 11차 총회를 위해 약 200억 원이 들어갔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마 6:21, 공동번역)라고 하셨다. 한국교회는 WCC 총회 유치국 교회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책임 있게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회원교회 기여’와 ‘프로그램 기여’를 다 합하면 한국교회가 WCC 1년 예산에 기여하는 부분은 0.3%가 안 된다. 이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번에 독일을 다녀오니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33년 전 필자가 처음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항상 부러워했던 독일 빵은 이번에 먹어보니 밀가루 냄새가 났다. 독일 빵이 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한국 빵의 수준이 올라간 거다. 독일 고속열차는 웬만하면 30분 늦게 왔다. 1시간을 늦은 적도 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네바에 있는 WCC 본부의 땅 1만 평은 서울 땅값에 훨씬 못 미친다. 생각보다 한국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많다는 걸 알았다.

유럽 교회가 절대적으로 재정을 감당하는 WCC는 ‘유럽 중심적’(Euro-centric)일 수밖에 없다. 유럽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이 아니라 종교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발언권이 재정 분배를 담당하는 ‘특별 기관들’(special ministries)에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WCC가 굳이 지역교회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운동은 사라지고 기구만 남는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스스로 제도화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더는 제네바를 바라보는 수혜자가 아니어야 한다. 무슨 위원이 되었다고 가문의 영광인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책임이 더 크다. 한국교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신학을 가지고 좀 더 주체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을 ‘움직이는 자’(mover)가 되어야 한다. 2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총대로, 읍저버로, 발표자로, 청년 스튜어드로, GETI(세계에큐메니컬신학교육원) 참가자로, 각종 전시와 특별 프로그램의 담당자로, 혹은 풍물패로, 그리고 취재기자로, 때론 자기 손으로 직접 모금하여 13-24시간 독일로 날아와 세계교회 참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활약하는 것을 본 필자는 이것이 개인의 막연한 상상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

### “발로 뛰는 에큐메니즘”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카를스루에 총회 메시지(Assembly Message)는 “함께 행동하기로의 초청”(A Call to Act Together)이다. 총회 메시지만 총회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가 전 세계 그리스도

인과 그들의 이웃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와 같은 세기말적 위기 속에서 무거운 분위기로 모였으나 참가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오히려 기대와 희망, 나아가 기쁨에 부풀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정의와 화해와 일치의 순례’를 떠나며 이 여정에서 모든 이들이 모여 함께 행동하자고 초대하는 것이다.

일치 선언문(Unity Statement)도 같은 내용이다. 부산총회의 일치 선언문에 비해 이번 총회의 일치 선언문에는 특별한 신학적 깊이나 내용은 없어 솔직히 실망이다. (언제부턴가 WCC 총회의 각종 발표들이 ‘연극 같은’(theatrical) 공연이 되고 있다. 시대가 변해서인가.) 다만 1948년 제1차 총회 이후 2013년 제10차 총회까지 역대 일치 선언문에서 어떤 신학적 성찰과 진보가 있었는지를 정리한 단락이 유익했다. 이번 일치 선언문은 ‘사랑’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심장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an ecumenism of the heart)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늘의 세계 분석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 문제를 처음 거론한 것이 새롭다. 세계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보다 동의하는 게 더 많다는 분석도 희망적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의 제자직’(loving discipleship)으로 부르신다고 확인하는 일치 선언문은 이제 단지 “함께 머무름”(to stay together) 뿐만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to move together), 나아가 “함께(서로) 사랑하자”(to love one another)라고 제안했다.

향후 8년의 WCC 프로그램의 총체적 방향성을 제안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to move together) 한다고 강조했다. 움직이는 것은 곧 운동이다.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체다. 특히 예언자적 운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WCC는 단지 “심장으로 하는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heart)일 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feet)이 되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한다. 이렇듯 이번 카를스루에 총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행동’이다. ‘발로 뛰는 것’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말의 성찬(盛饌)은 끝났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더는 인간이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총회를 사로잡았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 과연 제 11차 WCC 카를스루에 총회는 WCC의 마지막 총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2030년에 세계교회는 지구 어디에선가 제12차 총회를 열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절박한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핵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세계교회가 ‘정의와 화해와 일치의 순례’에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발로 뛰고, 함께 움직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



---

## 나가며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카를스루에 총회의 개회 기도회(Opening Prayer)가 한국의 작곡자 류형선의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로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여기저기서 “얼~쭈” 소리가 들렸다. 코로나로 인해 야외에 대형 천막을 치고 하늘 문을 닮은 장막 아래에서 개회 기도회가 열렸다. 뛰어난 독일 연주자들의 반주와 세계 각국의 찬송으로 카를스루에 총회는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 아직도 세계교회는 서로의 신학적 차이로 함께 ‘예배’(worship)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카를스루에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 두 번씩 드리던 기도회는 오래 잊지 못할 것 같다. 에큐메니즘은 ‘함께 행동하고’, ‘함께 발로 뛰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만, 필자에게는 무엇보다 ‘함께 노래하는 것’(to sing together)이다. 함께 노래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지 않던가.





포럼발제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 “WCC 총회와 시대적 과제”



**이삼열 박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 1. WCC Karlsruhe 총회의 시대적 과제

전 세계 개신교회대표들이 7-9년마다 한번 씩 모이는 WCC총회(Assembly)는 성서적 신학적 성찰과 함께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결하며,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하는가를 논의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회의다.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Karlsruhe에서 열린 WCC 11차 총회는 120여 국에서 3천여 명의 개신교신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이신다”(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라는 주제로 예배와 주제 발표, 성경공부, 에큐메니칼 대화, 총회 회의 등 여러 가지 행사의 모임을 가졌다.

이번 총회 주제의 특색은 그리스도의 사랑(Love)을 처음으로 주제어로 내놓았다는 것과 화해(Reconciliation)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동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인간들이 희생을 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세계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치유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었다.

또한 이념과 종교, 전통과 문화의 차이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의 세계와 교회의 현실에서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길은 화해와 일치를 모색하는데 있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분열과 갈등은 사회나 국제문제 뿐 아니라,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WCC 회원 교단 사이에도 동성애 문제와 타종교와의 관계문제로 탈퇴한다든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화해와 일치는 교회가 실제로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

특히 생태계의 파괴로 지구의 종말이 거론되는 오늘 날, 화해는 인간과 나라, 민족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화해, 공존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보다 역동적이며 포괄적인 화해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WCC 11차 총회가 열린 2022년의 시대적 상황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는 종말론적 (Eschatology) 상황이었다. 기후 위기만 해도 Kiribati 등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침수, 침몰의 위기를 맞고 있고, Pakistan의 폭우와 홍수로 1천여 명이 죽고, 인구의 3분의 1인 3천만 명이 집을 떠나 이주민이 되는 곤경에 빠졌으며, 아프리카에선 4년 내내 가뭄으로 2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유럽의 여름도 40도의 뜨거운 날씨와 5백년만의 가뭄으로 라인 강의 수위가 40cm로 내려가 배가 뜰 수 없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수만 명의 군인과 시민들을 죽였고, 1300만의 민간인들이 폭격과 파괴로 폐허가 된 집을 떠나야 했으며 수백만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 피란 길에 올랐다. 비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냉전 종식 이후 평화가 유지되던 유럽에서 NATO와 러시아가 대결하는 3차대전, 핵전쟁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칼스루에 총회 장소에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들과 러시아 정교회 대표들이 다 참석하고 있었는데 개회식에 축사를 한 독일 대통령 Steinmeier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옹호한 러시아 정교회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WCC 총회가 러시아 정교회의 회개와 전쟁지지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회 대표 몇 사람은 대회장을 떠나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한다.

전쟁과 폭력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었다. 세계도처에서 계속되는 학살과 고문, Palestine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폭력과 억압, Papua의 원주민을 학살하는 인도네시아 군대, Syria와 Lebanon에서의 종족학살 등 WCC 총회가 평화와 정의,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는 곳곳에 있었다.

이번 총회는 교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선교와 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대화(Ecumenical Conversation)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3개의 주제별 토론 그룹을 조직해 매일 지속적인 심층대화를 하면서 결의문에 담을 의견과 방안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깊이 있게 토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그룹의 심층대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행방식이었다.

대화의 주제는 기후위기, 건강과 치유, 중동평화, 정의로운 평화, 인간의 성문제, 디아코니아, 선교와 봉사, 4차 산업혁명, 인종차별, 종교간 대화, 성평등, 신학교육, 창조의 보전과 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별로 30명 이내의 대화 마당을 조직해서 4 차례나 진행했다.

여기서 토론되고 합의된 보고서들이 성명서작성위원회(public issue committee)에 보내져서 중  
 합되어 전체회의의 결의문이 작성되었다. 전체 회의를 통해 결의된 성명문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WCC의 소속교회들은 앞으로 7-8년동안 이  
 령게 합의된 지침에 따라 활동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가 발표한 성명서(public statements)는 네 가지였다.

1. 지구 행성 살리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향하여(Living Planet, seeking a  
 justice and sustainable global community)
2. 평화를 만드는 일, 화해와 일치로 세상을 움직여야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moving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3.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지역에서의 평화와 정의 (War in Ukraine, Peace and Justice in the  
 European Region)
4. 중동지역의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화의 모색(Seeking Justice and Peace for all in the  
 Middle East)

이밖에도 성명서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minute) 형식으로 발표하는 공  
 식문서가 있는데 네 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 1)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평화건설을 위한 회의록
- 2) Papua 원주민들인 다수 기독교인들의 억압상황에 대한 회의록
- 3) 나가르노-카라바크 전쟁 범죄(2020) 결과에 관한 회의록
- 4) 시리아 아람계 그리스도인들 집단 학살에 관한 회의록

이번 총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결의한 성명서 「지구행성 살리기」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 안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귀중한 유일한 창조물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돌보는 자(care taker)로 봉사해야 할 사명  
 을 받았다.

피조물과의 관계를 인간중심적으로 좁게 이해하던 방식은 이제 생명전체에 대한 이해로 수정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피조물에 상호 의존되어있다. 우리는 회개하고(metanoia)  
 피조물(자연)과의 새롭고 정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소명을 받았다.

---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회개해야한다. 이제 회개할 시간도 별로 없다. 아마도 이번 총회가 지구행성이 살수 없는 곳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기후와 환경정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요구된다.

화석연료는 끝내야한다. 생산도 중단해야한다.

부자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탄소감축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추진해야한다.

자연의 권리 장전을 만들고 기후범죄법정을 설치하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WCC 회의 여행도 엄격히 제한하고 디지털 회의로 전환하자..

정의롭고 풍성한 지구를 위해 회개하고 행동하는 에큐메니칼 10년을 설정하자.”

## 2. WCC의 역사 속에서 본 시대적 과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48년 8월 Amsterdam에서 창립 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갑자기 조직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추진된 에큐메니칼운동의 결과였다. WCC 창립 초대 사무총장 Visser't Hooft 는 「WCC의 기원과 형성」(The Genesis and Format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WCC는 누가 창설했는가? 누가 주역(Chief Architect)이였는가? 라는 질문이 가끔 나오는데 몇 사람의 인물들을 거론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릴레이경주(Relay race)처럼 몇 사람이 처음에 횃불(Torch)을 들고 얼마동안 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전개 되었다고 생각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일차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결성하자는 제안이 나올 무렵 나라와 민족의 연맹처럼 교회의 연맹(League of churches)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의 교파와 교단들을 연합(Union) 시켜 보자는 제안이 동방 정교회인 Constantinople에서 먼저 나왔다.

동방정교회의 이 제안문서는 Halki 신학교 학장이며 대주교(Metropolitan)인 Germanos Strenopoulos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그는 이미 1911년 Constantinople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인 John Mott(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IMC의 사회자)와 Nathan Söderblom을 만나 교분을 쌓았던 인물이었다. 동방정교회 총회(Synod)는 세계교회연맹을 만들자는 제안 문서를 1919년 1월부터 논의했고, 11월에 결의했다.

스웨덴의 대주교(Archbishop) Söderblom은 같은 해 1919년 4월에 “에큐메니칼 교회협회”(Ecumenical Council of Churches)를 결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일차대전 중에 “국제 교회 친선 세계 연맹”을 조직해 적대국 교회들 간의 친선과 화해 운동을 주도했던 그는 전후 국제연맹 조직이 논의되는 마당에 교회들이 연합해 도덕적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했다. 화해와 일치 평화를 향한 교회 전체의 목소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들이 만드는 국제연맹도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니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교회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1919년 9월 네덜란드에서 모인 「국제교회친선세계연맹」(World Alliance for promoting International Friendship through the churches)회의에서 잘 반영되어 동의를 얻었다. 이차 대전 일차대전 후 나타난 「국제교회연맹」(League) 제안이나 「에큐메니칼 교회협의회」(Council) 제안은 쉽게 조직될 수는 없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에 의해 조직된 여러 가지 회의와 운동을 통해 계속 논의되고 계승되었다.

1925년 Stockholm에서 열린 “삶과 일 세계 기독교 회의”(Universal Christian Council for Life and Work)는 Söderblom이 조직한 모임으로 WCC 창립에도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다.

1927년 Lausanne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 1차 세계대회에서도 교회연맹(League of churches) 아이디어가 심각히 논의되었다.

1937년 Oxford에서 열린 “삶과 일” 계속회의를 조직한 영국 성공회의 J.H Oldham도 세계교회협의회의 조직과 성격을 그려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1935년 미국에서 WCC 조직을 역설한 William Temple 대주교, 1937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신앙과 직제(Faith and Oder)회의에서 역설한 John Mott, 1938년 Madrid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서 WCC 조직 논의를 주도한 William Paton 등이 모두 WCC 창립을 위한 횃불을 이어받아 전해준 인물들이었다.

사실 WCC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가 1938년 Utrecht에서 조직됨으로써 WCC는 2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창립될 뻔했다. 사무국을 London과 New York, Geneva 세 곳에 나누어 두자는 결정까지 내린 상태였다. 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가 함께 참여했으므로 어느 교회가 먼저 주도했다고 할 수도 없다.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던 WCC 창립작업이 대전이 끝난 뒤에 다시 계속되어서 1948년 8월 Amsterdam에서 창립총회를 열게 된 것이다.

창립총회의준비는 1946년부터 추진되었고, 미국교회연합회 총무인 Samuel McCrea Cavert

---

가 준비위원회(arrangement committee) 의장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다.

2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 1948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Amsterdam에서 개최된 WCC 창립 1차 총회에서는 44개국에서 147개 교단 총대 351명이 참석해 교회사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1차 Amsterdam 총회의 주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Men’s disorder and God’s design)이었는데, 수천만 명이 죽고 파괴된 전후 혼돈의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며 치유하는가의 시대적 과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세계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도 고민스런 문제였다. 미국의 John Foster Dulles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고 체코의 로마드카는 동구 공산주의 편에서 발언했다. 그러나 WCC 총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거부하고 책임사회(responsible society)를 결론으로 주장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War is contrary to the will of God)라고 선언한 창립선언문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책임을 지는 책임적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선포했다.

1954년 미국 Evanston에서 모인 WCC 2차 총회는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이데올로기 대결과 핵무기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열렸다.

교회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며, 특정한 정치체제나 경제 권력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는 양대 체제의 공존과 평화, 핵전쟁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1961년 인도 Newdehli 에서 모인 3차 총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들의 교회가 다수 WCC에 가입함으로 식민지 해방, 전통사회의 붕괴에 따른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Nation building)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비판과 정치사회구조의 변혁을 논의했다.

1968년 스웨덴 uppsala에서 모인 4차 총회는 제 3세계(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가난한자들의 해방과 사회발전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놓고 교회의 혁신적 참여활동을 강조했다. 구제 사업,



봉사의 차원을 넘어 억압과 수탈, 종속적 지배에서 해방 되는 것이 사회 발전의 길이라고 천명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에서 가난한자와 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카톨릭과 함께 사회 발전평화(SODEPAX)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1975년 케냐 Nairobi에서 모인 5차 총회는 사회발전의 구체적 목표를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JPSS)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Society]라고 규정했다. 빈곤과 저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난과 소유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모순된 사회구조를 변혁해서 경제정의, 참여 민주주의,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교회의 시대적 과제로 설정했다.

193년 캐나다 Vancouver에서 모인 6차 총회는 핵전쟁 위기와 생태계의 파괴를 염려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목표를 추가해 내세웠다. JPSS에서 JPIC로 바뀐 것이다.(Just,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이때부터 교회의 생명운동, 환경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1991년에 호주의 Canberra에서 모인 7차 총회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도래 하면서 등장하는 종족, 문화, 종교의 다원성과 갈등,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과 문화(gospel and culture)의 관계를 중심 테마로 삼으며 진행되었다. 타종교와의 관계, 종교적 신앙 간의 대화가 논의 되었다. 정현경 교수의 주제강연(성령을 사마니즘적으로 이해한)이 논란된 것도 여기에서였다.

1998년 짐바웨의 Harrare에서 모인 8차 총회는 WCC 창립 50주년 기념과 남아프리카 해방과 짐바웨(전에는 로디지아) 독립을 축하하며 세계화시대에 나타난 종족, 종교, 문화간 전쟁과 폭력을 극복하는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삼았다.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전쟁과 인도네시아 종교 내전이 일어나던 때였다. 폭력극복 10년(decade to overcome violence)을 추진하기로 결의 했다.

2006년 브라질의 Porto Alegre에서 열린 9차 총회는 21세기의 첫 총회이며 남아메리카에서 처음 열린 총회였다. 세계화 시대의 모순과 비리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투기금융자본주의의 횡포와 착취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시대였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경제정의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었다. 총회의 주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혁 하소서”(Transform the world)였다.



---

2013년 한국의 부산(busan)에서 열린 10차 총회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모였다(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한반도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이념적 문화적 갈등과 폭력, 전쟁을 해결하는 정의로운 평화가 시대적 과제였다. 특히 남북한의 대결과 전쟁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 만들기에 전 세계 교회들이 동참하자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 3. WCC에 참여한 한국교회의 과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총회와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1961년 3차 뉴델리 총회 때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장로회의 강원용 목사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인사들 박상증, 강문규 등이 참석해 강 목사가 WCC의 교회와 사회 위원이 된 것이 WCC활동을 하게 된 첫 기록이다.

그 후 WCC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연합적인 교회와 기독교 운동, 사회선교적인 활동, 기독교청년운동, 기독교여성운동,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운동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7, 80년대 한국교회연합(KNCC)의 인권선교, 평화선교 활동은 WCC의 지원과 협력으로 대단한 성과와 업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WCC활동의 참여는 에큐메니칼 운동가들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막상 가입한 교단이나 교회의 참여나 관심은 미약했다. 여기엔 WCC를 용공조직으로 몰아 가입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한 반공정책과 정보부의 압력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경향이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단시 하면서 많은 편견과 오해를 양산한데도 원인이 있다.

이번 Karlsruhe에서 열린 11차 총회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200여명이나 참여했지만 아직 보수적 교단에서는 WCC 탈퇴 안이 논의 될 정도로 WCC에 대한 회의와 무지가 지배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한편에서 도시산업선교(URM)라든가 인권 민주화운동, 평화통일운동과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업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편에선 WCC나 에큐메니칼 운동을 악마시하고 이단시하는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WCC 부산 총회에 참석한 어떤 외국인은 WCC에 대한 hospitality와 hostility의 모순된 양상을 보고 간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제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한 한국교회의 우선적 과제는 WCC의 역사와 신학적 토대, 교회사적인 업적들을 같이 연구하고 교육해서 교회와 교인들의 에큐메니칼 정신을 계도하고 심화 시키는데 있다고 본다(Ecumenical Formation). 사실 이것은 WCC에 속한 모든 교단과 교회의 우선적 과제이기도 하다.

WCC 총회마다 강조한 시대적 과제들을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러한 주장들이 나오게 된 신학적, 윤리적 반성과 실천의 역사를 이해시키지 않고는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신학과 교육의 발전이 필요하다.

정의와 평화 화해와 일치는 모든 교회가 입버릇처럼 주장하지만 구체적 역사와 사회현실 속에서 이런 신학적 윤리적 교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수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아직도 예배와 전도 교회 지키기에 매달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적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배워서 실천하게 하는 노력(Ecumenical Formation)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국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이며 목표인 일치(Unity)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개신교의 많은 분열과 교파 간 경쟁 대립현상은 한국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한 그리스도, 한 복음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One Church)를 형성한다는 정신으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모인 한국교회협의회(KNCC)에 속한 교회들만이라도 연합예배나 회의, 연합운동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연합기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WCC 총회가 결의하고 권유하는 ‘기후위기와 지속가능 발전’, 킬러 로봇 같은 첨단무기 생산 중지, 한반도 평화촉진운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한국교회가 교파와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서 힘을 합해 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일들이다.

마지막으로 일치와 단합을 위해 요구되는 덕목은 포용과 대화의 정신이다.

나와 다른 믿음과 견해를 무조건 이단시, 악마시하며 배척하는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알아보고 대화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포용과 겸손이 필요하다.

WCC는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노선과 색깔, 신학과 예전, 역사

---

와 전통이 다르더라도 친교(fellowship)를 유지하며 협의하기위해 모이는 장소(space)일 뿐이라고 현장에 박혀있다. 결코 카톨릭처럼 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상위교회(Super Church)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주제를 어떻게 목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김창주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칼스루에, 독일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352개 회원교회들에는 약 5억 6천만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가장 큰 교회들의 모임이다. 매 7~9년마다 총회로 모여 다양하고 중요한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회들의 친교(the most diverse fellowship of churches)이다. 회원교회의 자격은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는데, 교단간의 연합, 새로운 회원교회의 가입 청원 혹은 탈퇴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회원교회의 숫자는 계속해서 변동되어 왔다. 부산 총회 이후에도 3개 교회의 연합/통합이 이루어졌고, 7개 교회의 가입, 2개 교회의 탈퇴가 있었으나, 여전히 6개 나라의 8개 교회가 회원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현재 6개의 에큐메니컬 기구들이 가입 절차에 있고, 2개 기구는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제네바 본부와 접촉 중이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가 열리는 현장에는 매일 약 4,000~5,000여명의 총회 참가자와 방문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와 예배를 드렸고, 주제 강의와 성경공부, 본 회의, 에큐메니컬 집회에 참가하였지만, 이번 총회의 총대는 646명(760명 미만)이었다. 그 중에서 80%는 회원교회가 추천한 총대들이었고, 나머지 20%는 총회 헌법 4조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요청한 총대들이다. 이번 총대(646명) 중에는 남성은 404명(63%), 여성이 242명(37%)이었고, 성직자가 451명(70%), 평신도가 195명(30%), 83명(13%)의 청년, 122명(18%)의 원(선)주민, 12명(2%)의 장애인들이었다. 그 중에서 159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되고 다시 중앙위원 중에서 실행위원이 선출되며 앞으로 8년 동안 총회를 대신하여 주요한 정책의 결정과 실행을 책임진다.

세계교회협의회 역사는 그 총회의 주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총회의 주제는 그 시대마다의

---

상황과 그 시대에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

1948년 암스텔담(Amsterdam, Netherlands)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1954년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Evanston, IL, USA)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Christ the Hope of the World)

1961년 뉴델리(New Delhi, India)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Jesus Christ—the Light of the World)

1968년 스웨덴 옘살라(Uppsala, Sweden)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Behold, I make all things new)

1975 나이로비(Nairobi, Kenya)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Jesus Christ Frees and Unites)

1983 밴쿠버(Vancouver, Canada)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생명’(Jesus Christ—the Life of the World)

1991 캔버라(Canberra, Australia)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Come, Holy Spirit—Renew the whole creation)

1998 하라레(Harare, Zimbabwe)

‘하나님을 바라라—소망 가운데 기뻐하라’(Turn to God—Rejoice in Hope)

2006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Brazil)

‘당신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

2013 부산(Busan, South Korea)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Justice and Peace)

이번 총회의 주제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the reconciliation and unity”는 처음 ‘온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선언적으로’ 번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조되었으나, 함께 논의한 결과 영어 문장의 ‘서술형’을 그대로 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로 번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에도 문제

점이 지적되었다. ‘이끄신다’로 번역된 동사 ‘moves’는 ‘이끄신다’라는 번역보다는 ‘움직이신다’, 혹은 ‘동력화하신다’, ‘견인하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총회는 기능 세 가지:**

1.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회원교회 간에 신앙 안에서의 친교와 축제, 믿음을 확인하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와 하나 됨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한다.
2. 총회는 회원교회와 협력관계의 기구들이 지난 총회 이후 진행해 왔던 사역과 활동을 나누며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의 일들을 보고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특권을 누린다.
3. 마지막으로 최고 의결 기구로 중앙위원을 선정하여 향후의 일정과 사역을 맡긴다. 중앙위원회는 약 150명 내외로 구성되며 모든 회원들과 교회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의미**

1. 독일에서 모인 총회:
2. 유럽에서 개최된 총회:
3. 총회의 주제가 만들어진 배경:

이번 총회는 당혹감과 염려, 긴장과 갈등 속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난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 왜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에 존재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온 세상에 편재하는 인종차별주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경제적 불균형, 성차별과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와 구조악, 여기에 더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유럽의 교회들과 우리 회원교회들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정해진 주제이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그리고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랑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다스리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답하여 왔다.

---

## 총회 본 회의

### 총회주제에 따른 다섯 번의 프레너리 미팅

1.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 화해와 일치(9월 1일, 창조의 첫 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 창조의 아름다움, 다양한 화해 안에서의 일치, 아파하는 세상(특별히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

2. 유럽(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온 세상을 다양한 도전 앞에 선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역 분쟁과 평화와 안전의 문제, 난민 문제, 위기의 고조, 식량문제, 에너지 위기와 10억 명에 이르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 무기경쟁과 확장의 문제 등

3. 생명의 하나 됨(통전성)을 확인 함.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사랑의 하나 됨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여야 한다. 이 사랑은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과 배제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께서 눈 먼자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는 보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었고, 온전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

4.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인 함. 정의의 문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주변에 편만해 있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작용되어 온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당연시 여기는 무관심의 죄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제자가 된다 함은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에 시작된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버려진”, 열등한, 권리와 존엄성이 상실된 채 정의를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소외된 자들의 소리, 즉 여성, 청년, 인종차별로 버려진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존엄성을 찾아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편견을 버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버려야 한다. 특권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존엄성과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5. 그리스도인의 일치과 교회의 증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일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교회의 선교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목회의 섬김 가운데 사랑과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본문이다.

## 에큐메니컬 대화의 장(Ecumenical Conversations)

이 대화의 장에서는 오늘 날 세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 됨의 일치와 선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일에 관하여 깊은 대화와 나눔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이 시간은 참석자들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3개의 주제가 다루어졌고, 4번의 대화의 모임으로 이어졌다.

- 진행자와 참가자가 함께 주제를 나누고
-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으로 주제에 관하여 대화하고
-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 이 주제가 향후에도 우리의 협력에 어떤 영향과 결실을 미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다룬 23개의 주제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계교회들의 과제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터 우리는 문제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C1: Mission Reimagined: Transforming Disciples Challenging Empire

EC2: Dreaming a New Future: A call from the Margins

EC3: Walking together Hand in Hand: Evangelism and Hustice-Exploring Theology and Practice for Mission and Evangelism in an Unjust World

EC4: The Gift of Being: A Church of All and for All-Inclusion and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inistry and Mission

EC5: Creation and Common Prayer

EC6: Broadening the Dialogue on the Church

EC7: Creation Justice Now! Climate Action and Water for Life

EC8: Who lives, Who Dies, Who Cares? The Church's Role in Health and Healing Today

EC9: Economy of Life in a Time of Inequality, Climate Chang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C10: WCC and WCT Alliance; Ecumenical Diakonia- Building Bridges and Local Action by Church Together

EC11: Conversations on the Pilgrim Way: Invitation to Journey Together on Matters of Human Sexualiity



- 
- EC12: Trends and Emerging Issues in a Rapidly Changing World
  - EC13: Toward a Just Peace in the Middle East
  - EC14: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 Holistic Approaches to Peacebuilding
  - EC15: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The Church and Others in the Faith of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 EC16: Together toward Racial Justice : Confronting and Dismantling the Enduring Legacy of Slavery and Colonialism in a Time of Increasing Populism and Xenophobia
  - EC17: Exile, Exodus, and Hospitality: Human Mobility, Displacement, and Public Role and Witness of the Church
  - EC18: Interreligious Solidarity and Interreligious Engagement
  - EC19: Theological Education - Why Its Ecumenicity Is Essential
  - EC20: Minding the Gaps: Safeguarding Gender Justice in Unity and Reconciliation
  - EC21: Christian Ethics and Human Rights
  - EC22: Churches and Moral Discernment: Facilitating Dialogue to Build Koinonia
  - EC23: Inspired by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Moving Together by the Love of Christ

### 현장 목회에 적용의 과제

이번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2030년, 우리는 제12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번이 세계교회협의회 마지막 총회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전쟁, 분쟁과 위기의 고조, 평화와 안전의 문제, 난민, 식량, 에너지 위기와 가난의 문제, 무기경쟁과 핵의 확산 등으로 지구촌은 불안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번 총회의 Message Committee가 발표한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A CALL TO ACT TOGETHER”였고, “The Love of Christ urges us on”(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5:14 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Action!” 행동하라! 실천하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총회였다.

## “청년의 관점으로 본 WCC 총회”



**이정규 청년**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서울성남교회

오늘날 신학생들은 주로 강의실에서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접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실 밖에서 에큐메니컬을 접하기 힘들다. 그러나 강의로만 접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한계가 있음을 제11차 총회에 참가하며 깨닫는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첫 총회가 열렸으며 주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2차 총회는 1954년에 에반스톤에서 열렸다는 등의 정보들이었다. 이 역시 꼭 필요한 정보들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보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총회에 참가하며 에큐메니컬 운동이란 역동적이고 실천적이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교단과 목사님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관심을 가져 기장의 청년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보다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352개 회원교회에서 약 4000명이 참여했다. 그중에서 한국인은 약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약 60명이 참여했다. 청년은 다른 교단을 합쳐 50여 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총회에 참가했고 본인은 일반 참가자로서 처음 접하는 WCC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설렘을 가지고 총회에 참가했다. 일반 참가자(participant)로 그 공간에 함께한 한국인 여성 청년의 관점으로 총회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청년으로서 바라는 점을 나누고자 한다. 총회 다녀온 지 몇 개월이 흐른 현재에 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되었다. 개인적인 경험과 귀국 후 다른 총회 청년 참가자들과 나누며 발전시킨 의견들은 반영하여 한국교회의 청년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 제안하고자 한다.

---

## 1. 총회 의결 방식과 중앙위원회 구성

총회 첫날의 첫 일정은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이오안 사우카 사무총장대행과 아그네스 아봄 의장의 보고, 독일 대통령의 발언 등 중요한 발언들이 연속해서 이어졌다. 총회 개시를 알렸던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총대들의 자리에 놓인 오렌지 카드와 블루 카드였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컨센션스(consensus) 방식으로 의결한다. 안건에 동의하는 경우 오렌지 카드를 들고 반대하는 경우 블루 카드를 들어 발언 기회를 얻는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어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는 한없이 회의를 연장하지만, 그 의미가 있다. 먼저, 총대로 참여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기에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간혹 수직적인 구조로 인하여 논의 자리에서도 다른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상급자의 암묵적인 의도 아래 회의의 결론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지점이다. 물론 WCC에서도 시간 부족이나 암묵적인 지지로 급하게 논의를 마무리할 때가 있다지만 그래도 다음 회의에 이어가던가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최대한 많은 입장을 수렴하여 가능한 민주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컨센션스 방식의 다른 장점은 어떤 사람이든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대립하여도 이것이 싸움이나 배제, 축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분열과 갈등으로 대화보다는 무시와 외면, 혐오를 선택하는 시대에 말 그대로 ‘최후의 안전한 대화 공간’<sup>1)</sup>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총회의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총회의 중앙위원선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WCC는 150명의 중앙위원 중 여성이 50%, 평신도 50%, 청년이 25%, 원주민이 3%, 장애인이 2%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구성해왔다.<sup>2)</sup> 올해 총회에는 여성 총대가 41%, 청년은 13%, 평신도는 23% 그리고 장애인은 3% 선출되었다고 한다. 총회의 기준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이 정도도 놀랍다고 생각한다. 총회 이튿날 기장 청년들이 모여 경험을 정리할 때, 올 한 해 한국에서 본 장애인보다 카를스루에에서 본 장애인이 더 많다고 말할 정도였다.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는 주변부가 중심부가 될 때 시작한다. 아직 부족하긴 하나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우선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인상 깊었다.

---

1) 장운재, “발로 뛰는 에큐메니즘 -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 보고와 성찰”, 기독교사상 767호(2022), pg.64.

2) 위와 동일, pg.54.

## 2. 기후 정의에 관한 관심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위기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서인지 총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기후위기 의제를 접할 수 있었다. 총회 가기 전에 선택하는 워크숍과 주말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총회 첫날 이어진 보고들에서 그리고 이튿날 이번 총회 주제로 기후위기를 다룬 시간 등을 통해 WCC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관심, 적극성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찾아서” 성명서가 채택된 것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 기후위기가 적극적으로 논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여러모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 중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을 꼽자면 9월 2일 금요일에 진행된 기후행진이다. 오후 1시에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기후행진은 총회를 가로질러 나간 뒤 부스거리 한편에 자리 잡고 발언을 시작했다. 아직도 랩 하듯이 음률을 넣어 발언한 남반구 여성 청년 리더들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그들은 심해 채굴 금지와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구호를 외치며 각자의 현장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힘찬 발언과 악기를 가져온 청년들의 연주 덕분에 발언은 내내 흥미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았다.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내뱉은 “Now!, 지금 실시하라”라는 말은 코앞에 다가온 위험에 대한 공포가 담겨있다. 제11차 총회에는 파키스탄 대표가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총회 직전에 파키스탄에 국토의 3분의 1일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대의원은 WCC 아시아지역회의에서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어떤 나라가 기후위기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WCC가 더욱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했다.<sup>3)</sup> 기후위기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기후위기 피해 속에 사는 청년들도 많다.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파키스탄 대의원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기후위기에 대한 총회의 공식 성명서가 채택되었다. 앞서 말했던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찾아서(The Living Planet: Seeking a Just and Sustainable Global Community)”이다. 함께 참가한 다른 청년 참가자에 전해 듣기로 본 성명서가 의결될 때 작금의 위기를 ‘기후변화’라고 할 것이냐, ‘기후위기’라고 할 것이냐. 무엇이라 지칭할 것인지 대해 첨예한 논의가 오갔다고 들었다. 결론은 ‘기후비상사태’로 내려진 듯하다. 독일 총회에 참가 중일 때는 채택된 성명서를 접하지 못했다가 한국에 와서 비로소 완성된 성명서

3) 송주열, “[여기는 카를스루에] 아시아 지역회의, “파키스탄 대홍수 관심 호소”...WCC 내 아시아 소외 지적도”, 노컷뉴스, 2022.09.03.

---

를 읽을 수 있었다. 살펴본 성명문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겼으나 그럼에도 위급한 지구 상황과 차별화된 책임을 명시하고 필요한 실천들을 제안하고 있어 전 세계 교회가 이 성명서를 통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 3.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

기후위기가 전 세계 모든 이의 관심을 끄는 보편적인 문제였다면 체감상 시작 단계에 놓여있는 듯한 주제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킬러로봇, 드론 등)이다. 부산 총회 이후 대두되어 이번 평화 선언문(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Moving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에 살상 능력을 가진 로봇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다. 세계가 전쟁에 대한 긴장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고 이것이 정당화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로 무기의 확산에 관한 내용이 평화 성명서에 담긴 것 같다. 언젠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해본 적은 있지만, 기술 발전과 안보를 연관 지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기에 이러한 논의들이 인상 깊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을 적용한 것을 볼 때 확실히 자율살상 무기에 대한 필연적인 논의가 멀지 않은 듯하다. 지난 9.24 행진에서 한국이 꽤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능하다면 바로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수출을 금할 수 없다면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나라로서 평화와 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새로웠던 주제는 “남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종교적 민족주의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과제”였다. FORB(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단체에서 준비한 이 주제는 어쩌면 지금까지 논의된 주제 중에서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주제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느껴진 이유는 본인이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 살아 인식하지 못한 것과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월 2일 오후 본 주제를 가지고 브루넌이 진행되었다. 브루넌 발제자는 총 3명이었으며 크리스천 인도인과 크리스천 파키스탄인이 현장에 자리했고 다른 한 명은 비자의 문제로 온라인 참석했다. 그들의 발제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남아시아 국가의 상황과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천 인도인이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행정적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배제된다는 말이었다. 또한, 폭력적인 종교적 민족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차마 말로 담지 못할 사건들이었다. 어떻게 한낮에 대놓고 이웃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데 종교라는 이름 아래 가해자를 옹호할 수 있을까? 믿기지 않았

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FORB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인권이며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체제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브루넌이 진행된 장소가 방음이 좋지 않아 모두 조용히 발제를 들었으나 이 순간만큼은 다 같이 크게 박수쳤다.

그동안 한국에서 신학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한 다양한 주제들을 WCC 총회에 참가하면서 접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주제들 외에도 성정의나 유럽의 평화 운동 등 다양한 논의에 참여해볼 수 있어 유익했고 참 즐거웠다. 총회에 참가한 열흘은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도 되었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 4. 제안

총회의 경험은 나에게 교회 공동체의 가능성을 넓혀주었다. 한국에선 경험해본 적 없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WCC에서 몸으로 배우며 에큐메니컬 운동의 빛을 보았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랑과 일치, 화해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총회 경험을 토대로 한국교회와 교단에 기대하는 바를 전해보고자 한다.

##### 1) 청년과 여성, 장애인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

교단과 교회가 청년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을 비롯한 소수자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길 바란다. 또한, 이들의 의견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WCC 총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제도적 방법이 인상 깊었다. 그곳에서 만난 여러 회원은 주변 부로부터의 선교를 이해하고 본인이 총대가 되는 것보다 총회의 요청에 따라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가 된다. 지금 바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WCC 총회처럼 여성 50%, 청년 25%, 장애인 3% 등의 비율을 구성하여 의사 결정 구조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길 바란다.

그리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사람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에게 목사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장애인 목사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장애인 목사가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학교와 교단이 함께 힘써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날 신학생들과 기독 청년

---

들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잘 알지 못한다. 대학 입시와 취업 등 사회적 압박에 일이 많아 바쁜 이유도 있겠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에큐메니컬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무언가 시작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이 있어야 기장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이들을 다 대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 젊은 목사님들을 대변하기보다 그들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목사와 시니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담론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활동가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 2) 기후 정의 행동

이번에 채택된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찾아서” 성명서를 통해 WCC에 소속된 모두가 생태적 전환에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공동의 행동에 가이드 라인이자 요청이며 이에 응답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먼저, 신학교와 노회, 교회 등에서 생태 신학 교육이 이뤄지고 교회의 삶과 일의 모든 측면에 기후 정의를 주류화하는 데 있어 교회가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강화해야 한다. 기후정의는 나와 저기 먼 곳에 있는 이웃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교육과 인식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현상을 다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도 귀한 실천이나 동시에 기업에 일회용품 생산을 줄이게 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를 전환하는 것이 그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후약당 국가의 시민으로서 원인 해결에 더욱 중한 책임이 있다. 현상을 막기만 하는 것은 총을 쏘고 치료하는 것과 같다. 애초에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한국기독교장로회 내에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후정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과 존엄한 삶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교회 내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주요 정책이 논의될 때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연구 진행

세상이 매일 빠르게 변하고 어느새 한국은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에 발맞춰 한국교회도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신학을 가지고 좀 더 주체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sup>4)</sup>

한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무기와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연구가 빨라지고 있는데 더는 ‘아직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이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아야 예방하고 지킬 수 있다. 기술을 인도하고 있는 나라로써 과학윤리, 인공지능윤리와 평화, 인권에 관하여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 정의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교회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 기준이 명시된 법 조항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 매 뉴얼이나 지침도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 인지 감수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단 구성원들의 인식도 뒤쳐져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식적 한계 속에서, 목회자 성폭력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sup>5)</sup> WCC는 자문 그룹(Gender advisor)을 두어 교회와 사회에서 성 정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sup>6)</sup>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행동강령을 행동 규범에 넣었다고 한다. 우리도 성정의 절차와 정책을 계속 연구하여 안전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WCC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문제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계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학생으로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싶다.

한신대에 입학하고 매년 배운 에큐메니컬을 올해 총회에 참가함으로써 비로소 이해한 듯하다. 아직 배워가는 중이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다고 도망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당시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총회에 참가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

4) 장윤재, “발로 뛰는 에큐메니즘 -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 보고와 성찰”, 기독교사상 767호(2022), pg.69.

5) 이용필, “[거룩한 범죄자들] ⑧ 주요 교단장들 ‘성범죄 경력 조회 도입해야’”, 『뉴스앤조이』, 2022.11.15

6) Tara Tautari, “WCC advisory group to promote gender justice”, 『WCC NEWS』, 2014.12.05.



---

었다. 탄소를 발생시켰고 다른 청년들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인해 참가할 수 있었던 만큼 총회에  
서 배운 에큐메니컬을 증언하고 응답할 책임이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는 활동하는 현장에서의 실  
천 방안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에서 WCC 아젠다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배우며 행동함으로써 주님께서 더웠던 여름, 독일로 보내주신 은혜에 응답해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우리 모두를 평화와 일치로 이끄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 주제성서연구

---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 “자비로우신 예수”<sup>1)</sup> (Jesus the Compassionate)

배현주 박사

前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실행위원

### 마태복음 9:35-38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 1.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교차 지점입니다. 이미 진행되었던 예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선교 활동에 대한 가르침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난 예수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공통적으로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등 예수의 세 가지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삼중 사역으로 일컬어집니

1) 이 글은 2022년 9월 1일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기간에 진행된 성서연구의 (수정)번역본이다. 당일 전체 행사의 주제는 “전 피조세계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화해와 일치”(The purpose of God’s love in Christ for the whole creation - reconciliation and unity)였다. 9월 1일은 창조절(The Season of Creation: 9월 1일-10월 4일)을 시작하는 ‘창조의 날’(Day of Creation)이었고 또한 모든 (성)폭력에 저항하는 ‘검은 목요일’(Thursday in Black) 캠페인을 기리는 목요일이기도 하였다.

---

다. 예수는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셨고, 가까이 임박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그들을 초청하셨으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36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자비로움이 예수 사역의 동력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고생하다’(eskylmenoi)는 말은 본래 가족을 벗기거나 껍질을 벗긴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기진하다’(errimmenoi)는 말은 엎어지거나 땅에 누워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풀이 죽었고, 지쳐있고, 짓밟혔으며,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예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자비로움으로 응답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묘사하는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14:14; 15:32; 18:27; 20:34)는 명사 ‘스프랑크논’에서 유래합니다. 이 단어는 첫째, 몸의 내장 혹은 장부, 둘째, 마음, 그리고 셋째, 사랑 혹은 애정을 뜻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긍휼히 여기는 행동에서 보여준 자비는 (5:7; 9:13) 그의 사랑의 역량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 사랑의 역량은 느낄 줄 아는 역량, 직감으로 공감하는 역량, 즉 마음과 몸을 통합하는 통전적 방식으로 공감하는 역량입니다. 자비는 예수의 삼중 사역의 궁극적 원동력입니다.

37절은 분량이 많은 추수거리와 적은 일꾼 사이의 불균형을 감지하는 예수의 현실 감각을 드러내줍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0장의 제자직과 선교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예비합니다.

## 2.

나자렛 예수는 내장에서부터 느끼는 심오한 자비의 마음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모습은 돌 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자에 관한 예수의 비유에서 신랄하게 묘사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만,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라는 이름의 가난한 이웃의 필요에는 무감각했습니다.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 지경이었습니다(눅 16:19-21). 부자에게는 비인간적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가까운 이웃인 나자로를 볼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완고했고, 경직되어 있었으며,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풍성한 소유를 독점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증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나사로는 그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였던 반면에, 부자는 양심의 결여와 이웃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더 심한 정도로 비인간화되었습니다. 자비의 마

음은 탐욕의 함정에 빠지거나, 이원론, 추상화, 계산의 세계 뒤로 숨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줍니다. 자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엡 5:1)가 되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눅 6:36).

우리는 인류세(Anthropocene)의 표징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협력해서 자비로운 문명을 건설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비는 인간과 자연 모두를 향해야 합니다. 이웃 인간에게 잔인하고 무감각한 사람의 마음이 하룻밤에 자연에 대한 생태감수성이 높은 마음으로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1931-2021)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 가족에 대해 인간 우호적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한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sup>2)</sup> 진정성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이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서로 화해하게 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화해시키는 평화를 지상에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엡 1:10; 골 1:15-20). 예수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 12:49)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적 힘을 복돋는 자비의 힘은 인간 우호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반문화(counterculture)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물망과 공생공락을 경축하는 새로운 문명의 토대입니다.

### 3.

자비는 리더십의 자질입니다.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언급은(마 9:36)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인 거짓 목자들의 잘못된 통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거짓목자들을 규탄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양들에게 해악을 끼쳤습니다. “포악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겔 34:4). 거짓 목자들은 양들이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흩어진 양들을 찾거나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겔 34:5-8). 이스라엘의 참 목자(마 2:6)인 예수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첫 번째 동사는 예수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이 동사는 4장 23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이어 ‘페리아고’의 미완료형인 이 동사는 예수가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행한 행동을 일컫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무관심하고 자신에게만 빠져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의 두 눈으로 그들의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

2) Archbishop Desmond Tutu, “Foreword” in *The Green Bible* (San Francisco: Harper Bibles, 2010), I-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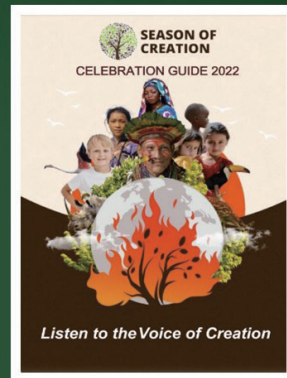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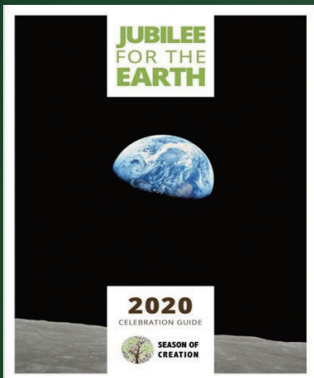
고 찾으리라”(겔 34:11). 다윗 같은 목자인 예수는(겔 34:23)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도자입니다.

2021년 11월 WCC 실행위원회는 COP 26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회원 교회들, 에큐메니칼 파트너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이 우리가 요청하는 변화를 만드는 일에 추종자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들의 모든 단위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이 절박하게 요청되는 이 때에, 리더십의 자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더십은 문명사적 규모의 메타노이아(회개; 근본적 전환)가 속도감 있게 일어나도록 과정을 촉진해야 하고, 만인의 참여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롬 8:19; 표준새번역). 지금 세계는 양심에 의해 자극받고 변화의 용기를 지닌 깨어난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 능동적이고 다양한 공헌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고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 회복, 화해, 그리고 일치적 절박한 사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 운동이 일으킨 자비의 불로 타오르는 목회와 선교를 재활성화하라는 긴급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있고자 합니다”(1948년 WCC 제1차 총회 메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우리는 함께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13년 WCC 제10차 총회 메시지).

**자비로우신 예수**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9월1일 성서연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 광주무들교회  
빛고을 평화포럼 &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강사: 배현주(전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실행위원)

**창조절**  
(9월 1일 - 10월 4일)





## 검은 목요일 캠페인



## 목 차

- I 본문 주석
- II 자비로우신 예수
- III 리더십의 자질
- IV 마음의 에큐메니즘
- V 그룹 토의 질문

## “무리를 보시고(When he saw the crowds)” (마태복음 9장 35절-38절)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When he saw the crowds)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 I. 본문 주석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의 삼중 사역  
(마 4:23)

## I. 본문 주석

36 무리를 보시고(When he saw the crowds)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다”  
“자비의 마음을 느끼다”

(스프랑크니조마이<스프랑크논)

- 1) 신체의 내장
- 2) 마음
- 3) 사랑 혹은 애정

## I. 본문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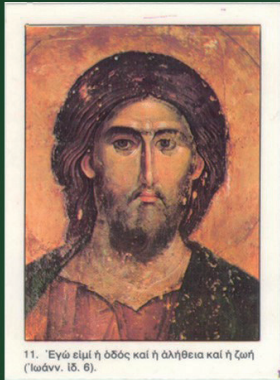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현실 인식  
&  
기도의 권면

## II. 자비로우신 예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36)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눅 16:19-21)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Lk 12:15)

## 부자와 나사로의 현대적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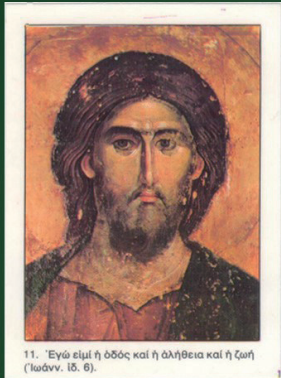
“인간은 수퍼맨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커질수록 인간은 더욱  
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수퍼맨이 될수록  
더욱 더 비인간적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양심을 뒤흔들어  
일깨워야만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1952)

“우리는 과학적 발전과 도덕적 진보 사이의  
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일해야만 합니다.  
인류의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가 과학적 공학적 풍요와 놀랍게 대조되는  
영적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도덕적 영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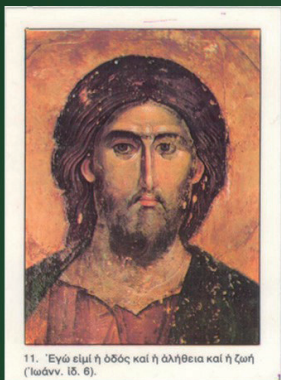
(마틴 루터 킹)

## II. 자비로우신 예수



“44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44-45; 표준새번역/개역개정)

## II. 자비로우신 예수



" 우리가 하나님의 온 가족에 대해  
인간 우호적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한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 III. 리더십의 자질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에스겔 34장)

VS

참된 목자이신 예수

(에스겔 3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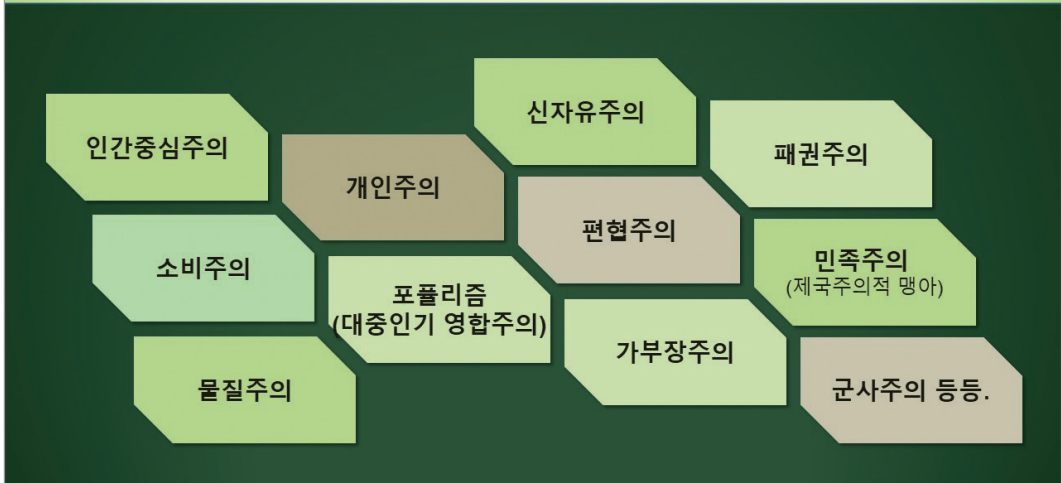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양떼를 찾으시는 목자 (헬라이어 ‘페리아고’의 미완료형)

(마태복음 9:35)

###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



## 우리의 의식과 마음의 습관들



## “주의 깊은 파워” 를 지니신 예수

”안하무인격의 파워”  
(위계적 파워: power-over)

”하나님, 이웃, 세계에 대한  
존중, 인정, 존경이 없는 파워”

VS

“주의 깊은 파워”  
(참여적 파워: power-with)

“타자에 대한 인정과 존경,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토대가 된 파워”

### III. 리더십의 자질

“파라다임  
전환”

from 에고 to 에코

from 탐욕 to 녹색

from 적대 to 환대

from 고독 to 연대

from 약육강식 적자생존 to 공생공락 (우분투)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 III. 리더십의 자질

“파라다임  
전환”

from 사악한 상상력 to 예언자적 상상력

from 소비주의 to 자족과 감사의 영성

from 무한한 성장 중독 to 존재와 사랑의 예술

from 양에 대한 집착 to 질에 대한 관심

from 죽음에 대한 사랑 to 생명에 대한 사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 IV. 마음의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Heart)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눅 12:49).

“한 민족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부르는 교회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 화해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미움이 소멸되고,  
교만하고 증오에 찬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형되게 하는  
그러한 불의 공급원이어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 IV. 마음의 에큐메니즘 (An Ecumenism of the Heart)

“전 세계 모든 회원 교회들, 에큐메니칼 파트너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일에 지도자들이 되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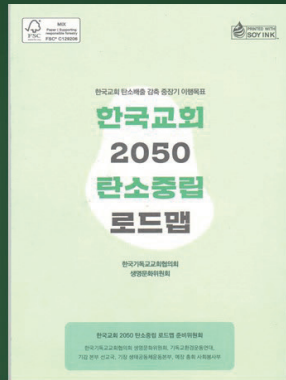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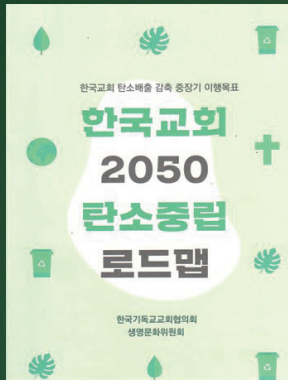
(2021년 11월 WCC 실행위원회 성명서: “COP 26 결과에 대하여”)

- 1 자비의 불로 세상을 살리기
- 2 우상숭배로부터의 참회 (요한1서 5:21)
- 3 생명을 살리는 연대와 동행의 기쁨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바라는 변화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 한국교회 그린 엑소더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 IV. 마음의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Heart)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당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여기에서만 아니라 저 밖의 세상에서도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그 함마숄트 제2대 유엔 사무총장)

---

## V. 그룹 토의 질문

1 개인,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킨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전지구적 차원에서 생태적 회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성 때문에 변화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태적 회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방법부터 생각해보시고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3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은 우리 사회가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입은 치유자'(헨리 나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 화해와 일치”

잭 크하릴(Jack Khalil) 박사

번역 / 김원배 목사

### 골로새서 1:19-20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찬가 중의 한 부분이다.

이 본문 부분이 오래전부터 전승된 찬가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바울에 의해서 찬가형식으로 쓰여진 것이냐와는 상관없이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음악처럼 들린다. 이 성서본문이 세상의 구원자를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부여한 창조자로 인식함으로써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창조교리 사이의 가교를 만들어낸다.

첫째 단(15-18전반부)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16절)로 일치시키며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둘째 단(18이하-20)은 그리스도가 그의 인간되심(19절)과 그의 고난의 역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창조에 대하여 그의 충만함을 밝힌다. 이를 통해 둘째 단에서 말해진 지난사건들이 첫째 단에서 확증된 것들과 밀접한 관련가운데 있음이 분명해진다.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창조자라는 것이다. 그의 피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그와의 화해로 이끈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들의 창조에

---

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 고백하는 첫째 단이나 모든 것들의 화해를 말하는 둘째 단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에 대한 반복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의 화해가 기인한다는 앞서의 언급을 확증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화해로 이끄신다. 그는 우리를 우리들의 이웃들과 그의 창조세계에 행했던 나쁜 행위들에서 나타난 그를 향한 적대행위를 회개하도록 부르신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죄악들은 적대행위나 감사하지 못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적대행위는 육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우리들의 자아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불이익을 안기려고 할 때 생긴다(갈 5:16절). “육체의 도구들로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기, 분열”(갈 5:20) 등은 관계 맺음 속에 발생하는 죄들의 대표적인 예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이라고 말하고 있다. 죄와 악한 행실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로 만든다는 사실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적대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원수 맺기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적으로 여긴다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입장은 바울서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누군가 원수로 여기는 자에게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롬 8장 7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골로새서 1:21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자 요하네스 크리스트모스가 더 확실하게 표현했다. “그래 무엇을 경고했는가?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화해한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적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적대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시다”<sup>1)</sup>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서술하는 골로새서 1:20절과 다른 곳들에서 사용하는 능동태형 “화해하다(katalakai 또는 apokatalakai)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여성 그리스도인들과 남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기를 권고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수동태 화해되어짐(katalattesethai)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

1) St. Johannes Chrysotom, 고린도후서에 대한 설교들, in New Advent, <https://www.newadvent.org/fathers//2202.htm>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화해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분쟁들과 전쟁들,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정의들, 기후위기와, 코비드19의 재앙에 다양한 형태로 이것들에게 이바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적대관계의 용서가 그와 같은 죄악들을 통해 원수가 된 모든 인간들과 평화를 창조하셨다. 단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총만으로(골1:19)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람이 되신 아들만이 원수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화해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곳에 다시 정의가 지배하게 할 수 있으며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기, 분열로 눈이 어두워져 어둡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인간들은 그들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의에 다다를 수 없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사도바울은 2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과 함께 화해의 순간을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피가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과 구원을 일으킨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추동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치를 가져온다. 모든 죄의 뿌리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자기를 버리신 희생으로부터 배운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선과 자비가 모든 사물들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께서 우리들의 세계와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 가운데 용기를 내어 그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부터 배움으로 우리 모두 모든 희생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의, 평화,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의와 일치로 이끄는가?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어떻게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모든 창조세계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들은 무엇인가?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크리지스즈토프 밀카렉(Krzysztof Mielcarek) 박사

번역 / 김원배 목사

### 누가복음 10; 25-37

-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의 서두 대화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구절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진 인간에게 이 의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쉼(신6:4-9 역자 주)을 매일 반복하여 암송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기본적인 진리를 묵상하였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대화를 한 발자국 더 진전시킨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에게 그의 사랑의 대상을 결정해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상은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웃이 누군가? 라는 이 물음이 예수께서 행한 비유의 핵심을 형성하며 비유에 등장하는 주역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비록 이 비유가 성서 전통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등장하는 주요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가련한 사람이다. 이 비유는 그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머물러 있다. 비록 우리에게 이 비유가 그의 관점에서 서술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는 이 비유이야기의 중심에 서있다. 그는 율법교사가 물었던 이웃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여 우리는 나사렛의 교사의 다른 비유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통 친구 또는 이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표현인 re'a 또는 헬라어로는 plesion이라는 성서적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는 제사장, 레위인 또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주인공에게 모든 한 낯선 사람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sup>1)</sup>

실로 비유 이야기는 전개에 따라 강도 만난 사람과 그냥 지나간 세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점차 커진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 성소들을 방문한 이후에 고향 길로 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적어도 그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 대신에 두 사람은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길을 바꾸어 다른 길로 돌아서(antiparerchomai) 갔다. 이렇게 함으로 그

1) 히브리어::bene'kar/is-nokri/ge'r/zar, 헬라어::allogenes/allogenes/paroiskos.  
 다음성경을보라:창세기17,12-17,42,7;에스더8:12,1미가12:10;욥기28:4;시편35:15,105;12,109;11;잠언5;10,8;8,14;10,27;2;전도서6;2;시락32;18;이사야61;5에레미야 14;8,51;51;호세아7;9,8;7,요엘4;17;오바다1;11; 에베소서2;12,4;18.

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sup>2)</sup>으로부터 그들의 거리를 더 크게 하였다. 다른 한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외국인의 전형임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한 경건한 유대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sup>4)</sup> 증오는 서로간의 적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극단적인 거리됨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적대감과 악의로 가득 찬 장벽을 넘어선다.

예수의 비유는 비유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즉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사마리아인의 연민에는 단지 의미 없는 감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한 여관으로 옮기고 그를 돌보아 주며 그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선불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안심되고 행복한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듣는 자들을 혼돈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래서 예수는 비유를 듣는 자들의 관심을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행위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언술은 짧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사마리아인과 예수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많은 설교자들을 그들의 자비에 대한 생각을 완전한 헌신으로 끌어올리도록 이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결론이 다른 그림을 산출하게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주인의 보호 안에 있게 한다(10:35). 그는 그의 삶을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희생을 하는 일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에 걸맞는 도움을 준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그리스도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론들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결론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2)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위한 불결함을 피하려 하였다는 바램을 보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기피했다는 것을 보고 있다.

3) 주석자들은 서술된 비유의 내용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누가복음에는 더 많은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예수를 통한 나병환자의 치유의 경우를 보라(눅 17:11-19)

4) 사마리아인의 기원은 아시리아제국의 이스라엘의 점령(기원전 722년)과 관련되어진다. 왕국백성의 일부는 당시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갔고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다른 문화와 다른 신앙을 가진 외국백성이 이주하였다(왕하 17:24-4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통합되었고 그들의 신앙적 세계관이 이스라엘 신앙과 혼합되었다, 이 현상은 다양한 종교들의 요소들을 받아들여 그리스신앙에 본부를 둔 종교로 발전되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차이점들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로 발전되었다(요한복음 4,9절과 예루살렘 탈무드 세카림 1,4,3, 세비이트 6,1;8.8.1을 보라).

1. 그리스도인들은 한 이웃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있다.
2. 종교기관에 속했다는 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판단들과 상관없이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라.
4. 당신은 당신의 안락함과, 소유와 시간에 손해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도우라.
5.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에 걸 맞는 행동을 하라.

현대세계는 이 비유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날, 모든 나라들과 대륙들까지도 구조적이고 지구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많은 종교적이고 국제적인 기구들이 오늘날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거대한 부의 편향과 삶의 수준이 더 잘사는 나라를 찾아 이민물결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다. 끊임 줄 모르고 발생하는 일련의 피투성이 지역분쟁들은 피난민들이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잘사는 나라들과 지역들은 이같은 재난의 현상들로부터 발생하는 희생자들의 곤궁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경험한 근세는 우리에게 전에 보지 못했던 영웅적인 희생과 동시에 냉랭함의 예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계 공동체가 그들의 오류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효과적인 행동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개 교회들, 특별히 재난현장에 있는 교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묻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이웃일 수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이웃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는 비록 우리가 우리들의 안정, 소유, 시간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경우일지라도 이웃이 되라는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다.

예수님의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상 “우리 모두”다. 이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곤궁가운데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를 그러므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 “그리스도의 사랑 - 삶을 위한 자비 - 삶의 총체성에 대한 긍정”

디아나 트사그히키안(Diana Tsaghikyan) 박사

번역 / 김원배 목사

### 요한복음 9:1-12

-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

보통 사람들은 맹인의 치유를 기적으로 본다.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맹인의 치유는 사실상 기적이었다. 기적은 당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역시 기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럼에도 이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도 중요하다.

우리가 맹인 구걸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부모를 가졌었으나 홀로 남았다. 그는 사회가운데 살았으나, 사회로부터 배제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는 그리스도가 그를 보고 그의 현실을 바꾸었을 때까지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보자 곧 우리는 어떻게 예수께서 “맹인과 불구자를 집에 들이지 말라!”(사무엘하 5:8)는 속담을 비난하는가 하는 증인들의 입장이 된다. 이때 예수께서는 죄와 고통에 대한 제자들의 비뚤어진 생각을 교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로 제자들을 깨우치신다. “그리고는 배려와 공감 대신에 구체적으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다. 그 맹인은 이 명령을 따라 행한 후에 다시 돌아왔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으나 어느 누구도 예전에 눈멀었던 자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은 필요한 배려나 자비심 대신에 무관심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감정이나 새롭게 변화된 느낌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그는 배려와 공감대신에 사람들의 무관심에 직면했다. 이와는 달리 예수께서는 배제되고 한계 지워진 맹인을 그의 사랑과 은혜로 고치셨다. 예수께서는 사회에 도전을 하시고 행동하셨다. 예수께서는 맹인에게 희망에 대한 깊은 감정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의 내적인 의식을 선물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복원 시켰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비전과 빛을 주고 있다. 삶의 비전에 대한 실망, 역정, 결핍은 우리들의 현재의 실존과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불확실성에 대한 흑암으로 뒤덮이게 한다. 그러므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의 비전을 붙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지력이 사라지고 경건이나 자비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머물 수는 없다. 오늘날- 2022년 이후- 교회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도전들 앞에 서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비싼 약품이 필요하다. 자비(Barmherzigkeit)가 그 대답이다. 참된 자비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빛을 볼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자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꾼다. 우리들이 우리의 팔을 벌려 우리들의 삶에 자비를 맞아들이

면 우리는 온전히 공감, 희망, 믿음과 인내를 추구하게 된다. 인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인간이 되게 하는지를 가치 평가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의 모든 측면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자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할의 강력한 평행선을 지시하고 있다. 자비는 성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딤후 3:16)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 돌출되어 나타난 자비의 한 범례이다. 예수께서는 자비는 친구들과 이웃들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환기시키고 빛의 비전이 보전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종차별, 부정의, 가난, 폭력, 정치적 불안정, 전쟁과 기후위기와 하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지배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시대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어느 때 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관점들, 문화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망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같은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무엇보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의 모든 곳에서 증거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일치될 이룬다. 우리들의 창조자와 살아있는 관계와 함께 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게 느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받는 삶으로 향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길을 열어주고 이 밝고 삶을 향한 길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들 모두가 생명과 창조의 목적을 갖는 삶을 향해 살도록 하는 확신을 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향한 희망과 은혜를 주셨다.

나는 우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에 의해서 발견된 목적과 함께 다양한 인류에게 무한한 관심을 보여주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책임이 따르며, 자비와 영과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그의 걸잡을 수없이 쏟아지는 빛에 이끌리어 행동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과제를 홀로 완성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함께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현재를 살며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들이 함께 하고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

저기 멀리 떨어진 빛 속에 거하는  
빛 그리고 빛나는 것의 원천  
낮의 빛이 밝아옴과 함께  
우리들의 영혼에 깨달음의  
빛도 보내주소서<sup>1)</sup>

---

1) Nerses Shnorhali( St. Nerses der Gnaedige) 중세의 탁월한 신학자중 한사람으로 아르메니안 교회의 역사에서는 에큐메니칼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위의 인용은 빛에 대한 그의 찬양(Luys ararich Luso)중의 한 구절이다.

## “그리스도의 사랑 - 변화된 따름 - 정의와 인간존엄에 대한 긍정”

파울로 우에티(Paulo Ueti) 박사

번역 / 김원배 목사

### 마태복음 15:21-28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가복음 7:24-30의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 마태복음 본문은 더욱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이야기 중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기원 후 80-90년경에 쓰여졌으며 팔레스타인 예수 당시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공동체의 대부분의 문서들의 추측가능한 원 자료인 시리아교회에서 일어난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

고 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다. 누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맞이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본문으로 이 본문은 환영관습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와 삶의 삶과 관련하여 선동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언어, 출신, 관습, 성, 나이,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적인 폭력, 인종, 결핍, 고통, 병, 차별, 외국인 혐오와 지속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한 상황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신 10,18)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들이 성서법전에서 관련된 성서본문들을 읽으면 토라와 예언자들의 정신은 억압, 병, 차별, 폭력에 직면하고 있거나 인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신약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일차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은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다.

대화의 방식으로 본문에서 한 외국인 여성과 유대인 예수의 만남이 펼쳐지고 있다. 그 여자는 문화적으로는 헬라적인 가나안 여인이다. 이 여자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저자에게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에게는 외국인이며 여성인 사람과의 대화나 관계를 맺고 주님의 식탁에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동 식탁, 코이노니아는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공동식탁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함께 묶어준다.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자에게 있어서 두 사람의 이름 없는 여인들-딸과 어머니-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장면은 처음에 평상시에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서로 말 한번 나누어보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달갑지 않은 만남으로부터 전개되어지고 있다.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인이 아니면 야만인이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는 일이 일어났다.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사이의 말 교환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화를 분석해 보면, 그 두 사람은 상대방과의 논쟁하는 것이나 대화의 방식이나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동등한 선상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여인은 전혀 비굴하지 않다. 그 여자는 참여적이고 현명하며 상처를 받지 않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집요하다. 대화는 그 여인의 딸의 병과 그녀의 예수에 대한 기대와 숨어있으려는 예수를 방해하는 그녀의 영민함으로 인해 서서히 풀려나고 있다. 그 여자는 그녀의 곤궁을 주목하지 않으려는 남자에게 뻔뻔스러움으로 다가가고 거친 말로 제자들 권에서의 동정심 없음에 맞서고 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한 여인이 모른 채 하려는 사람에게 소리치는 불편한 장면을 상상해 보라.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께서 그가 어린이로 배우면서 성장했고 그에게 전수

된 입장을 설명했다. 그에게 빵과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공동체와 그를 지지하는 그룹에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였다.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게는 누구와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행위 전개 과정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의 대화 중 어떤 주제들이 논의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만남: 더러운 영/ 곤궁: 상 위에 있는 빵/ 상 아래 떨어진 빵부스러기들: 식탁 위/ 식탁 아래. 이들은 서로 접근에 이를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인 교육을 받은 그녀는 그녀의 간절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다.(그녀의 딸의 치유, 악한 영의 추방, 그 여자는 그녀의 딸의 회복을 위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여 그녀 자신이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 예수는 문화적으로 비타협적이다(인종주의적이고 비관용적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식탁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마태의 보도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 여자를 내어보내소서” 요청하는 것을 본다. 그 여자 곁에 서지 않고, 그 여자를 존중하지 않고 가게 하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두 경우들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방해하는 남자들이 중간에 서 있음을 보고 있다. 마태복음의 공동체에서는 여성은 예수라 이름하는 식탁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인이 그녀의 경건함과 언어적 영민함으로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예수에게 갈 수 있느냐? 누가 빵에 이를 수 있느냐?” 이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자녀들, 예수 클럽에 속한 그 누구들과 죄로부터 해방되고 준비된 제자들뿐인가? 두 본문들은 그것이 예수의 일차적인 생각이고 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여인은 이러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여인은 그녀 자신과 그녀와 비슷한 경우로 사람들이 배제되는 규범이 있는 세계에 살고 싶지 않았다. 그 여인은 이러한 문화, 전통과 종교의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언어들을 넘어서고 이 남자가 그의 생각과 행위를 바꾸도록 하였다. 그 여인은 새로운 인식론적 가능성을 위한 기본원칙이 놓여지는 통찰을 창조하였다: “..어린 아이들과 찢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시 8,2a)

문자적인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이 빵을 언급하는 두 다른 성서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4:13-21. 5000명의 사람들과 빵을 나누는 첫 번째 부분;

12광주리가득 빵이 남았다

마태복음 15:21-28. 누가 예수에게 가며/ 누구에게 빵이 속하며/ 남은 부스러기는 누구에게

---

속한 것이냐에 대한 우리들의 모호한 이야기.

마태복음 15:15;32-38 . 4000명의 사람들과 빵을 나누는 두 번째 부분,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 같은 상관관계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마가복음에서도 발견한다. 예수님과 누가 빵을 나누어 가지며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과 토론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빵의 기적의 첫 번째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설명 되고 두 번째 빵 기적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예수에게로의 접근은 동시에 공동체에서의 접근이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 때나 지금이나 고착되었고 고착된 것들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예수/식탁 성만찬식탁/공동체/대화의 장애로 나아갈 수 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28)

예수, 빵, 또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서의 접근은 다른 언어와 각자 다른 갈망들과 서로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소망들을 가진 다양한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충점들, 그리고 의견 차이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인물과 그들의 갈망들의 문화적 지리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말하자면 빵, 식탁, 건강, 공동체, 후원, 인정의 결핍으로 한 여인과 그 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망들과 예수와 문화적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외국인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모두 남자들이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은 경청하고 의견의 차이점들 가운데서 그들의 부정적인 우월감을 극복하고 끝까지 대화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 건강과 삶은 오직 대화적인 과정에서 복돋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공동체에 대한 경고는 사랑과 삶의 만남들에서 의견의 차이점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관계들을 위한 개방성, 영적이고 직업적인 경청, 연대, 공정성과 교환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만남들은 병과 죽음을 막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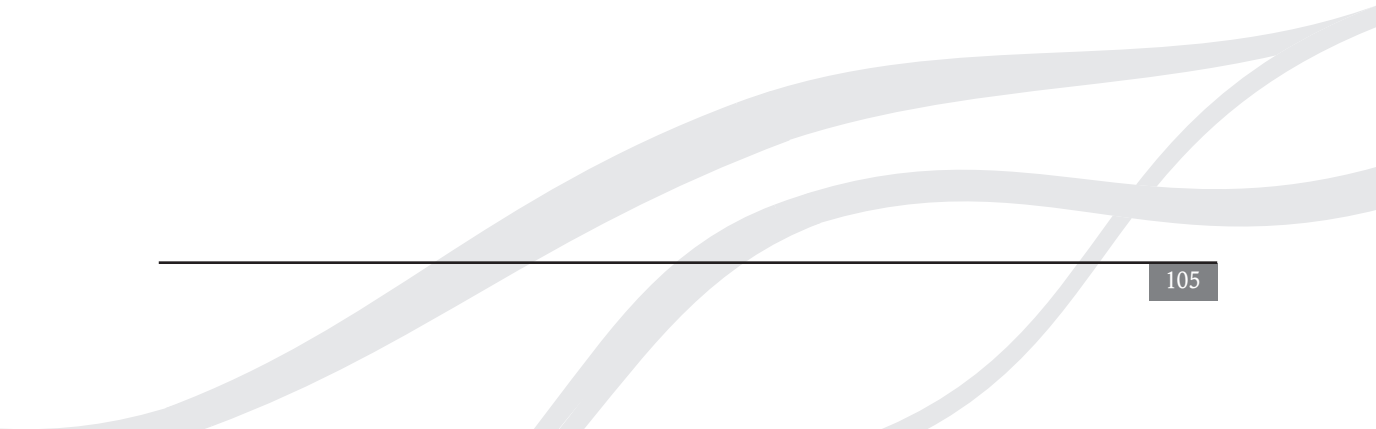
고린도전서 11:28-32에서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비판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연약한자와 병

자들이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살피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전 1:27-28). 예수와 공동체는 더 많은 것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을 망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들의 진실들과, 전통들과 도덕들로부터 벗어나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어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해방의 영성을 위해 본질적인 방향에 주목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에게 복종할 수 있다. 가나안 여인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기가 죽지 않았다. 그녀는 희생자다, 그럼에도 소극적이지 않다. 그녀는 그녀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dynamo)을 부여했다. “개”(그녀가 실제로 주장했던 것처럼)라는 그녀의 신분 자체가 그녀가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신학들, 우리들의 관습들 그리고 우리들의 목회적 돌봄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적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종류의 폭력에 맞서는 것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서며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가 병들고 배제되고 우리들의 인간성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대화를 모색하며 대화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들은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에 널리 퍼져있는 하나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도전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소명이다. 비유<sup>1)</sup>에서 씨 뿌리는 자가 땅의 형편이 여의치 않을 지라도 씨를 뿌리자는 부름을 듣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우리들의 영을 분노와 저항으로 각인된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1) 마태복음 13,3-8; 마가복음 4,3-8; 누가복음 8,5-8



## “그리스도의 사랑 - 그리스도적인 일치적 결합과 교회들의 공동증언”

케네스 엠타타(Kenneth Mtata) 박사

번역 / 김원배 목사

### 마태복음 20:20-28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  
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  
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한 총애를 간청하기 위하여 거의 숭배하는 모습으로 저 자세를 하고 예수를 향하여 오고 있다. 두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 불리워지고 있지만, 그녀는 두 아들의 출세를 부탁하기 위하여 그녀의 여성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 지배권

---

이 아버지들의 수중에서 행사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의 특징이다. 그러나 사실상 공적영역의 밖에서 진정한 힘은 어머니들에게 주어져 있었다. 여하튼 어머니는 그녀의 두 아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추구한다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하나님나라”에 대해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부 지식인들은 하나님나라에 대한 마태의 지향을 “유대-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 당시 바리새서기관들의 지도 아래 고착되었던 유대교의 세계관으로부터 그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배경에서 이해했다”<sup>1)</sup>. 다른 학자들은 전체 마태복음을 개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어 사용을 로마제국의 권력과 지배와의 관련성 속에서 보고 있다<sup>2)</sup>.

두 학자들의 관점은 무조건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로마인들이 그들의 집중된 안디옥 통치가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로마인들은 곧 멸망하게 될 이방인들이다. 로마인들은 그들에 의해서 식민화된 나라들을 잘 길들여진 정치적 대리인 행정관들과 군대를 주둔시키고 종교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통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힘의 우위”(katakuriuousin)를 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식민지화된 백성들과 같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도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인들이 행하였던 힘의 우선순위로 삼는 영향을 받았고 이들을 모방했다. 그래서 지배적인 힘의 우위와 강압적인 관계들을 통하여 특징 지워졌던 그들의 독자적인 작은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부터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좋은 자리를 원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하나님나라에서 특별한 자리가 보장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는 힘으로서의 힘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26-27)으로 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보인다. 그와 같은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diakonus)가 되고 심지어는 종(dulos)이 되어야 하며 죽음에까지 이를 각오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17-19절).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면서(29-34) 두 맹인(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 대한 반대의 표지로)을 고친다. 우리들에게 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눈을 열어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다. 예수는 가르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섬김과 겸손한 섬김의 완성모델이다.

---

1) A.B Du Toit, “마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나라”, Skrif en Kerk 21, Nr.3(2000), 545.

2) Boris Repschinsk, “시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정치권력에 대한 마태의 관점: in 마태복음의 구성, 신학, 그리고 초기 사상”, Joseph Verheyden, Jens Schroeter und David C. Sim(Tuebingen: Mohr Siebeck, 2022), 149.



##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24절)

Mary Jane Gorman은 말했다: “우리들은 다른 10 제자들의 분노와 일치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우리들이 덕스럽게 거절하고 귀빈 곁에 앉는 것을 사양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앉아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도 아마도 화를 내게 될 것이다<sup>3)</sup>. 제자들의 일치가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위협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 역시 폭력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특권을 추구하는 힘들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분노와 불이익 불신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로마제국 시대의 상황과 같이 오늘의 세계도 권력의 군사적, 배타적, 우상 숭배적 형태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억압적인 현상은 허위의 아버지 지배와 어머니적인 결합체들(아들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요청하는) 절대적인 좌/우의 과격한 이데올로기들(한편으로는 우파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들이) 또는 윤리적인 소속성과 정체성(세베대의 아들들)을 근거로 한 가족경제를 통하여 종교와 경건성(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의 가림막 아래 유지되어 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일치는 그와 같은 힘에 대한 생각이 섬김의 힘을 통해 대체되고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섬김은 인간들의 실천능력을 받아들이는 권에서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면 참으로 일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교회 일치를 가져오는 디아코니아는 사랑, 즉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안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사랑은 두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커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사랑하셨다.

이는 아버지적이고 어머니적인 결합체를 넘어서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 형제와 자매의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사랑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결합체들을 넘어서 적은 소수의 독점적인 특권들을 견제하는 사랑이다. 이 참사랑은 일상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품을 넓게 한다. 그와 같은 사랑은 인종과 인종적인 광기와 우월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이러한 사랑은 비굴하지 않는 겸손을 만든다.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종(doulos)의 겸손한 섬김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섬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랑은 에로스적이고 정렬적인 감정들에 근거하지 않는다.

1) Mary Jane Gorman, 제자들 바라보기: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배우기, (Nashville, TN:Abingdon Press, 2008)



---

사랑은 단순히 친절한 존중이 아니라 순전한 친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랑은 부모들의 그들의 자녀를 향한 강압적인 사랑이나 친구들과 친척들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사랑이 솟아나는 원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인 아카페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다. 이 사랑은 교회와 세상가운데서 억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독소를 제거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부터 추동되는 교회는 세상가운데 있는 증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의 권력행사의 논리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행하는 권력행사는 세상적인 권력행사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임박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들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행사되는 권력행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공헌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족, 그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시민사회 속에서 그들의 모범적인 삶과 말들을 통해서 불평의 파수꾼들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비록 현재는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입장들을 발표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용기 있고 자기희생적인 증언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불의하고 부정의 한 권력관계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구조들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것들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믿음에 충실한 교회들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한 저항의 말들은 지역,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교회는 증가일로에 있는 군사주의, 물질주의, 개인숭배주의, 여론호도, 잘못된 정보들, 악의, 사형법, 그리고 공공사회와 국민 대중에 대한 점증하는 독점력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똑같이 또한 힘차게 “그렇다!”를 외쳐야 한다.

동정과 자비, 의미 있는 관계맺음에 대해서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 사업들, 분쟁들의 조정, 공공 권력들의 겸손, 그리고 상호존중에 대해서 “그렇다!”를 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력의 나눔의 모습이 아닌가!

## 성서연구 강사소개



**배현주 박사**

부산장로교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였고,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창조의 보전을 위한 한국기독교환경연대의 공동대표, 한국에클레시아생명학 연구원 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잭 크하릴(Jack Khalil) 박사**

안디옥과 전 동쪽의 그리스 동방정교회 감독이며 발라만드 대학의 성·요한 신학연구소 책임자이며 신약학 교수이다. 그는 데살로니카 아리스토텔레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3년 동안 독일 칼 에버하르트 튀빙겐대학교에서 초청 장학생으로 연구했다. 그 밖에 그는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이며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크리시스즈토프 밀카렉(Krzysztof Mielcarek) 박사**

루블린(폴란드) 요한 바울 2세 가톨릭신학부에서 가르치는 성서학자이며 신학자이다. 그는 폴란드의 에큐메니칼 성서의 발행인과 번역자중 한사람이다. 그는 세계교회협의회와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위원이다.



**디아나 트사그히키안(Diana Tsaghikyan) 박사**

에레반 국립대학교 신학부 조교수이며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다. 그밖에 그녀는 게오르즈키안(대학교) 신학대학교 박사과정 위원회의 위원이다. 2019년부터 트사그히키안 박사는 아르메니안 사도교회 대표로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미국 중앙침례교 신학대학에서 종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제레안 국립대학교에서 언어와 사회를 위한 연구로 학사학위과정을 마쳤다. 그녀의 연구 분야는 교부들의 신학과 기독교교리 분야이다. 그녀의 특별한 관심은 아르메니안 교회 선조들의 신앙유산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녀의 또 다른 연구의 관심분야는 에큐메니칼 신학과 시대의 도전을 신학적 주제로 탐구하는 것이다.



**파울로 우에티(Paulo Ueti) 박사**

일본 어머니와 이탈리아 아버지를 둔 브라질 사람이다. 그의 연구 분야는 라틴아메리카 신학, 상황에서 읽는 성서연구, 신약성경의 법전들과 그 법전들의 교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나라 신학, 영성, 성, 환경정의와 교회론 등이다. 그는 브라질 성공회 감독교회의 성서연구(CEBI)를 위한 에큐메니칼 센터의 위원이며 런던에 있는 성공회연합회 내 성공회교회공동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학교육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케네스 엠타타(Kenneth Mtata) 박사**

짐바브웨 신학자이며 짐바브웨 교회협의회 총무이다. 그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적인 참여와 종교와 사회적인 변화의 교차점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카자줄루-나탈 대학교에서 요한복음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평화예배

---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화예배”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

· 인도 최현태 목사 ※ 신전중앙교회

### · 예배를 위한 행진 **다함께** ▶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 예배공동체와 순서담당자들이 함께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를 합창하는 가운데 순서 담당자들이 십자가, 성경, 촛불, 지구본을 들고 교회 통로를 통해 입장하여 강단에 마련 된 공간에 진열하여 청중이 보게 한다.

### · 예배에의 초청 **다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달, 초하루 우리들은 분주한 일손을 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우리들을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만이 갈갈이 나누어진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끕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보전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감사찬송 **다함께** ▶ 66장 “다 감사드리세”

1. 다 감사드리세 온 맘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 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2.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3.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 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 “참회의 애가 ... 오늘 세계의 현실과 성령님의 탄식”

### · 참회의 애가 1. 정문달 장로 ※ 광주노회 부회장, 장로회 회장

#### “우크라이나 탄식의 기도”

2월의 한파속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봄의 파종을 기다리던 우크라이나 땅에  
파종의 꿈을 짓밟는

겨울보다 더 혹독한 러시아의 포탄과 탱크가 밀려왔습니다.  
 여름이면 밀과 옥수수, 보리와 귀리,  
 사탕무우가 초록 파도를 일으키며 넘실대던 우크라이나의 평원은  
 농부들의 손길과 돌봄을 잃고 자라기를 멈춘 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황금빛 파도가 땀과 수고를 씻기던 가을들녘은  
 추수를 잇은 채 박제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활력으로 넘치던 도시는 화염에 휩싸이고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며  
 다시 겨울을 이어  
 지난 2월의 악몽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수많은 어린생명들, 불타는 청춘들이 스러지고,  
 노구를 이끌고 연명하는 노인들의 신음이 울려 퍼지는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를 돌아보소서.  
 저들의 기가 막힌 탄식과 눈물과  
 땅으로 스며드는 핏자국을 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응답송                   **다함께 ▶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참회의예가 2.       **설희라 장로** ※ 광주노회 여신도연합회장

### “기후위기 탄식의 기도”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던 땅,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던 땅,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부여주셨던 땅,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그 땅이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푸른 숲과 들판 중 과실과 생명으로 충만했던 땅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와 생물들이 물결과 짝을 이루며 군무를 추던 바다생물들이  
 이제는 살 곳을 찾아 대이동을 하고  
 해양쓰레기들과 사체들이 죽은 몸으로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끝없이 푸른 창공을 비행하던 날짐승들은 이제 갈 곳을 잃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마음 놓고 숨을 쉬던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며

청정했던 에덴의 동산을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던 땅  
 심히 좋았던 이 지구를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탐욕으로,  
 분별없이 자르고, 버리고, 뽑어내고, 소비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생명과 축복의 땅이 아닌  
 죽음과 저주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돌아보소서.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 응답송                      **다함께 ▶ “여기 오소서 내 주여”**

· 참회의 애가 3.            **염기열 장로** ※ 광주노회 남신도연합회장

**“불평등에 대한 탄식의 기도”**

다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며  
 행복하라고 주신 이 땅의 모든 재화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땅에 선을 긋고  
 내 것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함께 따먹던 과일나무가 오늘은 힘센 누구의 것이 되었고  
 힘이 약한 누구는 그의 것이 된 과일을 따 주고 내 것으로 조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힘센 자의 것은 자꾸 불어서 태산이 되어가고,  
 오대양 육대주를 넘실대는 큰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진 힘이 약한 수많은 사람들은  
 빈손을 가지고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늘도  
 잠을 잃고, 건강을 잃고, 평화를 잃고, 행복을 잃고  
 때로는 목숨마저도 잃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불평등의 간극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불평등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돌아보소서.



---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

· 응답송                    **다함께 ▶ “여기 오소서 내 주여”**

---

· **참회의 애가 4.**            **윤도경 청년** ※ 광주노회 청년연합회장

---

###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도”

헬조선에 사는 아픈 청춘의 현장을  
그날은 좀 벗어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오랜 기간 고시원 단칸방에서 씩름하다가  
합격소식이 너무 행복해서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어 하루쯤 기분을 내보고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158명의 별들은  
다 그들만의 충분한 마음 시린 사연들이 이유가 되어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158명의 별들은  
누구도 그렇게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이기고 생명을 앗아갈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이태원 골목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함께 할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보호막이  
자신들을 돌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은 부서지고 그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이슬 같은 이 땅의 미래들이  
그냥 들판에서 베어지는 추숫단처럼 그렇게 스러져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허망하여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모들과 남은 자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어  
이태원의 골목을 지금 피빛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

· 응답송                    **다함께 ▶ “여기 오소서 내 주여”**

---

· 오늘의 말씀      **인도자** ▶ 누가복음 19장 1~10절

- 1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 7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설교      **채수일 목사** ※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아래로 내려가야”

· 응답송      **다함께** ▶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2번반복)

“세계를 위해 함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

· 중보의 기도 1.      **이삼열 박사** ※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기후위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아름다운 지구별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기후변동과 생태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 증대로 북극의 얼음산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며 홍수와 산불, 폭염과 가뭄이 그칠줄 모릅니다.

주님,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 인간의 욕심과 허영이 지나쳐 과잉생산과 소비로 자원을 낭비하고 산림과 강물과 광물과 공기를 더럽혀 지구촌을 황폐하게 하는 어리석은 만행을 뉘우치게 하소서. 화석 연료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일이 생명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거룩한 과업을 앞장서 실천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 응답송      **다함께** ▶ “자비 베푸소서”

---

· 중보의 기도 2.      **배현주 박사** ※前 WCC 중앙위원, 실행위원

“세계의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모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정글 같은 세상속에서 강도만나 쓰러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무관심, 혐오와 적개심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세상속에서  
상처입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의로운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도록  
화해와 평등의 길을 보여주신 구원의 하나님,  
저희가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화해, 일치의 순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응답송                      **다함께 ▶ “자비 베푸소서”**

· 중보의 기도 3.      **김창주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심으로 이 지구촌은 한 순간도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치고, 파괴되고, 부상으로, 난민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염려와 비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그 고통을 기억하고 아파해야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무심함과 무관심으로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오,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양국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땅과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응답송                      **다함께 ▶ “자비 베푸소서”**

· 중보의 기도 4. **이정규 청년** ※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서울성남교회

“이태원 참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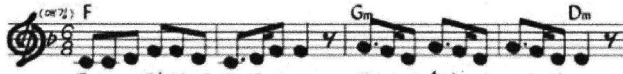
생명의 하나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보듬어주신 생명들을  
 우리가 지난 10월 이태원에서, 또 한번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자매 형제였으며, 자녀이자 부모였습니다.  
 찬란한 시간을 보내던 아름답고 소중한 158명의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누어졌던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고  
 이들이 편안히 숨 쉬며 안식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같은 현장에서 상처 입은 196명의 눈앞의 참사에 망연자실했던 이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참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책임져야 할 이들은 회피하고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은 모진 상황에 황망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재발방지와 진실 규명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시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소서.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해질 그날까지 싸워갈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하소서.  
 언제나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눈물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응답송                    **다함께 ▶ “자비 베푸소서”**
- 주기도문 찬양           **다함께 ▶ “주기도문송”**
- 축도                      **윤세관 목사** ※ 증경 기장총회장
- 감사인사                **김민호 목사** ※ 빛고를 평화포럼 이사장
- 알리는 말씀            **권점용 목사** ※ 빛고를 평화포럼 서기이사
- 기념촬영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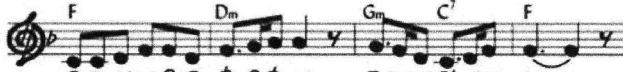
#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류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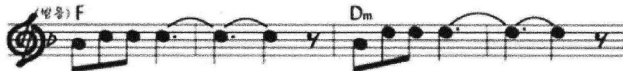
(원제: 주께서 왕이시라)



1.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2. 경의의 오른팔 쳐 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충을 준다 주께서 왕이시라 -  
산천아 초목아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



할렐루야 - - 할렐루야 - -



영씨구나 좋 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

(통일 20)

# 다 감사드리세

66

창조주

M. Rinckart, 1636

보통으로

Now thank we all our God

우리가 주에 감사하며 주의 영회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대장 29:13)

NUN DANKET: 67676666

J. Crüger, 1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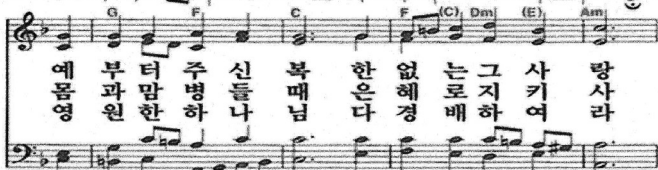
Harm. by F. Mendelssohn, 1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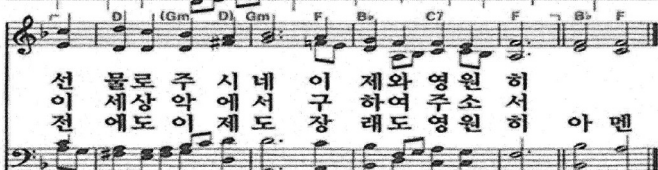
1. 다 감사드리세 온 땅을 주께 바쳐  
2. 사랑의 하나님께 나함께  
3.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이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니



예부터 주신 복은 그 사랑  
영광과 영원한 날마다  
영광을 배회하시라



선물로 주시네 이 구원  
전 세계에 이 제도  
창래도 영원히 아멘

## 22 여기오소서내주여

아프리카 노래

여기 오소서내주 여 여기 오소서내주 여

여기 오소서내주 여 오 주여 오소서

## 이말씀따라사는동안

류형선

이말씀따-라 사는동안 지치지않-게 하시고

이말씀따-라 사는동안 주님 나라이루소서

## 자비베푸소서

태국 노래

자 비베푸소서 - 자 비베푸소서 -

자 비베푸소서 - 이제와영 원 히 -

## 주기도문송

A E7 A D E7 A Bm E  
 하 늘 에 - 계 신 아 버 지 - 이 름 거 록 하

A F#m C#m F#m C# D  
 사 주 님 나 라 임 하 시 고 뜻 이 이루

A/E E7 A D A D A Bm E A  
 어 지 이 다 일 용 할 양 식 주 시 고 우리

F#m G# F#m G# A  
 들 의 큰 죄 다 용 - 서 하 읍 시 고 또 시 험 에 들 게 마

Bm B E7 A D  
 시 고 악 에 서 구 원 하 소 서 대 게 주 의 나 라 - 주 의

A/D# Dm/F A/E Bm E7 A  
 권 세 - 주 의 영 광 - 영 원 - 히 - 아 - - 멘



## “아래로 내려가야”



채수일 목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 누가복음 19:1-10

- 1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야 하겠다 하시니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 7 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감절이나 갚겠나이다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광주 빛고을 평화 포럼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인다’는 주제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를 평가하고, 한국교회가 제11차 총회 후, 어떤 과



---

제를 가지고, 씩씩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를 광주에서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준비해주신 광주 빛고를 평화포럼 이사장 김민호 목사님과 원장 김원배 목사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오늘의 자기 자신을 만든 책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든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책을 만났는데요, 샘 킨(Sam Keen)의 ‘춤추는 하나님’(To a dancing God/ 이현주 목사 번역)이었습니다. 샘 킨은 1970년대 하버드 대학 신학교수로서 ‘새로운 신학’(New Theology)라는 시리즈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신학들을 소개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저에게, ‘춤추는 하나님’은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먼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계신 늙은 절대 권력자라고 배웠던 저에게, 샘 킨의 책은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나와 함께 슬퍼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몸은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성, 특히 여성의 신체성을 죄악시한 교회신학의 전통 때문입니다. 특히 이원론에 기초한 그리스 철학이 신학의 패러다임이 된 이후 신학의 육체 경멸은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금욕주의 전통은 부분적으로 육체경멸을 제도화했고, 육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중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신학의 탈육체화는 코기토(cogito)를 추구하는 데카르트의 인식론적 철학의 지배가 물려준 근대적 유산의 특징입니다. ‘탈육체성’, ‘자아중심성’, ‘시각중심성’이라는 이런 근대의 유산이 결과적으로 신학의 남성화를 초래했습니다.<sup>1)</sup> 사정은 근대 이후의 신학의 발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과 선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안에서 인간의 육체성은 신앙의 이름으로 억압받았습니다.

그런데 샘 킨(Sam Keen)은 1970년대 ‘몸’을 자신의 신학적 주제로 삼음으로써 보수적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온 저에게 몸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이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춤추는 하나님’(To a dancing God)에서 ‘세련된 신학자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결코 육체를 정신보다, 그리고 감각을 마음보다 낮게 평가하는 낡고 영구적인 이원론을 떠날 수 없었다..... 소규모의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구원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안에 육체성이 위치하는 것에는 아

---

1) 정화열, 몸의 정치, 241, 248.

직도 뿌리 깊은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를 말할 때 조차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귀’가 구원의 기관이지 몸 전체는 아니라는 전통에 굳게 서 있습니다.<sup>2)</sup>

샘 킨은 구원의 이원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총체성, 전인성을 말함으로써 몸을 긍정하고, 구원의 신체성을 주장했습니다. 샘 킨은 이런 신학을 ‘내장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감각’보다 ‘만지는 감각’에 무게 중심을 두는 ‘내장 신학’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함께 느끼는 것에 주목합니다. 아기가 다치는 것을 보고 몸을 움츠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자아와 타아 사이의 내장의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聖)스러움을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 수입된 것보다는 토속적인 것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내장 신학’이라는 것이지요.<sup>3)</sup> 샘 킨의 ‘춤추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일상적 근원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sup>4)</sup>

그렇게 1970년에 만난 샘 킨을 저는 그의 다른 책, ‘공중을 나는 철학자’를 통해 2000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책은 샘 킨이 대학에서 은퇴한 후, 공중그네타기를 배우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젊은이들도 배우기 힘들다는 공중그네타기를 배우면서 경험한 기록이지요. 그가 학원 문을 두드렸을 때, 학원장이 회의적인 눈으로 늙은 은퇴 교수를 보고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 샘 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은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젊은이들도 힘들다고 하는 일에 도전함으로써, 늙는다는 것이 곧 쓸모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직 그 쓸모, 사용가치로만 보는 세상에 샘 킨은 도전장을 던진 것이지요. 그리고 감동받은 원장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학원에서 공중그네 타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샘 킨은 공중그네를 잘 타려면 무엇보다 팔의 힘을 길러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줄을 오랫동안 잡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높은 곳에서 줄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훈련으로 시작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원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놀랍게도 그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샘 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오직 올라가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2) 샘 킨, 춤추는 신, 185-186.

3) 샘 킨, 춤추는 신, 207.

4) 샘 킨, 춤추는 신, 208.

---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자녀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일류 대학이 더 좋은 직장과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육은 오직 신분상승, 그에 상응한 소득상승, 곧 올라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그네 타기는 먼저 떨어지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올라가기 위해서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또 그래서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는 법이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나이가 된 샘 킨, 그는 이렇게 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네를 놓는 것보다 잡는 것을 더 잘했지만, 마지막 묘기를 완성하기 위해 나는 우아하게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한다.’

## 2.

예수 시대,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극심한 천대를 받고 증오를 받은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리는 공적으로도 법률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었으며, 이방인 노예와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사생아처럼 혈통에 큰 결함이 있는 사람까지도 요구할 수 있었던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sup>5)</sup>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으로 같은 백성을 착취했고, 자신의 직위를 부당한 부를 증식하는데 남용했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 민중으로부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세리를 ‘세리와 죄인’(막 2:15-16), ‘세리와 이방인’(마 18:17), ‘세리와 창녀들’(마 21:31-32) 등의 병렬구로 지칭함으로써,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관장이었고, 게다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둔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는데,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삭개오가 왜 유대 민중에게 천대받고 경멸받는 세리가 되었는지 복음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키가 작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직업과 신체적 조건 사이에 무언가 연

---

5) 요아힘 예레미아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 신약성서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 한국신학연구소, 1988, 392.

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키가 작은 것은 약하다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은 키는 차별과 열등감의 원인입니다. 삭개오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작은 키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당한 차별과 천대를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고, 여리고의 부유한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정죄를 받거나, 억압을 받고, 차별받으며, 변두리로 추방당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마태 9:9), 세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한 것(눅 19:9)이 그 반증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면서 그들과 식탁을 함께 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두 번째 해석의 초점은 구원과 선행의 관계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가 예수에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삭개오의 선행은 죄인으로 천대받는 자신의 집에 묵겠다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고 합니다. 구원은 선행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기쁨이 선행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눔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이미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관심하는 것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예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 가려면 마땅히 뽕나무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에게 ‘어서 내려오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상징적이고 은유적 표현으로 들립니다.

---

### 3.

삭개오도 공중 그네타기를 배웠던 샘 킨처럼 오직 올라가기 위해 살아온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조롱받고 차별받은 서러움이 어찌면 더 악착스럽게 출세하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층의 사다리를 억척스럽게 하나씩 올라간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다른 현실을 보려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 사회를 ‘위와 아래’로 나눈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유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지구의 다수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지구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 양극화도 현실이었습니다. 기후 재앙의 가장 큰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모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위와 아래’는 언어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현실이 된 기후재앙과 팬데믹은 인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인류가 같이 살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 할 것이라는 깨달음이지요.

닐 블롬캠프 감독이 2013년에 만든 영화, ‘엘리시움’(고대 그리스어로 ‘신들의 영역’을 의미)이나, 2021년에 상영된 영화,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 업’(Don't Look Up)은 이런 현실을 사이언스 픽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픽션은 논픽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대회 주제인 ‘화해와 일치’(Reconciliation and Unity)가 이 분열되고, 상처받고, 평화와 생존을 위협받는 이 세계 안에서 실현되려면, 무엇이 행해져야 할까요?

칼스루에 총회는 성명서, ‘살아있는 행성: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커뮤니티 모색하기.’(The Living Planet: Seeking a Just and Sustainable Global Community)를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육체적, 실존적, 생태학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깊은 연대와 정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른다.’고 하면서, ‘더는 시간이 없다. 세계 기후 상황은 긴급 상황이다..... 이번 총회가 인간이 거주 불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걸 막는 마지막 기회다. 시스템과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속하게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화석연료는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신화석연료나 핵에너지는 결코 대안이 아니다.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탄소 감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고 한 삭개오를 모델로 한 삭개오 세금(Zacchaeus Tax)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 군사훈련과 전쟁을 종식하여 이 비용을 기후 긴급 상황에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녹색 해결’(green solution)이 가난한 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위적 주장이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부자 나라들을 ‘기후정의를 위한 화해와 일치’어로, 전쟁으로 국익을 챙기는 강대국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일치’어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남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있어서 아래를 잘 볼 수 없는 사람들, 지구 자원을 독점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오직 위로만 올라간 사람들이 ‘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중에게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적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민중의 언어를 배우고, 민중과 소통하고, 민중의 현실을 인식하고, 함께 화해된 세상을 꿈꾸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이를 것입니다(눅 19:9).







## 협력교회

---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가나다순)

### ▶ 광주 무돌교회

담임목사 김민호  
부목사 김상중·김준수·배신철  
시무장로 김근배·박병윤·김성균·최영국·정성태·김헌배·김병철·김현성

### ▶ 광주 무진교회

담임목사 장관철  
시무장로 이계양·신성주·황영배·김문균·이길선·김중헌

### ▶ 광주 백운교회

담임목사 권점용  
시무장로 김현식·강정태·최진선·오호열·김용욱

### ▶ 광주 성광교회

담임목사 박상규  
부목사 박민욱  
시무장로 강민구·강성구·김삼수·김춘재·신순자·유부열·윤강철·임정빈·한춘단

### ▶ 광주 세광교회

담임목사 황두환  
시무장로 정문달·심명섭·김주섭

### ▶ 광주 양림교회

담임목사 최학휴  
부목사 석인호·박천우·재갈다일  
시무장로 조운호·김상채·김형곤·오석인·최상순·장상용·이문창·최 찬·박정휘·남종희·이제용·이동열

---

▶ **광주 예원교회**

담임목사 박광현  
시무장로 송기훈·손송환·박종관·김일래·박성민

▶ **광주 한빛교회**

담임목사 허정강  
부목사 최덕호·김혜정  
시무장로 김경남·김용배·김인구·김재윤·박태홍·염기열·오영근·이선주·이정환·이혜원

▶ **목포 꿈동산교회**

담임목사 김 신  
시무장로 양해일·허재기

▶ **목포 연동교회**

담임목사 최재명  
전도사 이주일  
시무장로 문 응·이기남·문 호

▶ **목포 함께걷는교회**

담임목사 조기흠  
시무장로 이상현

▶ **나주 빛가람교회**

담임목사 문병석

▶ **무안 제일교회**

담임목사 홍경택  
전도사 김성희  
시무장로 문문성·김갑수·손광호·정승용·정원권·배홍석

▶ **강진 서문안교회**

담임목사 김 준  
시무장로 조병락·김영모·강진원

▶ 성전교회

담임목사 전용식  
시무장로 박경숙·최성호

▶ 순천 중부교회

담임목사 이인수  
시무장로 엄건용·이의택·임원재·김제권

▶ 신전중앙교회

담임목사 최현태

▶ 여수중부교회

담임목사 고병국  
시무장로 정장수·정형근·심민성·김경식·설종국·고일현

▶ 작천교회

담임목사 배태진  
시무장로 조해자·장광식·임경용·고성수·김혜경·박희용

▶ 칠량교회

담임목사 정병길  
시무장로 최기남·김명희·김경숙

▶ 해제중앙교회

담임목사 오승용  
시무장로 김인재·윤영만·김장재·이승민·윤천석·이운수

▶ 화순읍교회

담임목사 주승민  
부목사 박정화  
시무장로 조인용·유추근·김정환·김주석·최형수·정지영·백명희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2022년 12월 1일(목) 오전10:30-오후4:30

광주무등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금남로 5가)

주최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찬아카데미**

